

Life of Youth

청년생활

10

1963



혁명의 수도 평양시 건설에 청춘의 힘과 정열을 바치자!

지난 9월 21일 평양시내 청년들은 민주 수도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평양시 청년 열성자 회의를 진행하고 우리의 수도를 더 빨리, 더 웅장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평양 속도》를 계속 빛내일 것을 결의해 나섰다.

그들은 수도 건설 지원 청년 돌격대원의 영예를 지니고 들끓는 건설장에 달려 나갔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0
(169)
1963

차 례

표지 1면, 《사회주의의 더욱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그림, 박 정식

권두언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를 위한

천리마 대진군에서 돌격대가 되자!

지금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은 흥분과 혁명적 정열로 들끓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가 제시한 력사적 과업과 휘황한 전망은 전체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으며 당의 전투적 호소는 그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를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간고 분투한 결과 쌓아 올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제력을 일층 강화할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 놓았다.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자! 당은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이 위대한 설계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은 명년에 이미 건설하여 놓은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하려 하고 있다.

이 력사적 과업이 실현되면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 데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 경리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될 것이다.

이 력사적 과업의 실현은 또한 공화국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조국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을 통하여 시위하는 것으로 되며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격파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불패의 힘과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게 될 것이다.

실로 오늘 우리 인민 앞에는 휘황 찬란한 전망이 펼쳐져 있다.

이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것은 얼마나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인가!

당은 이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붉은 편지를 보내였다.

당은 우리 혁명과 건설 전선에 새롭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에게 뜨겁게 호소하였으며 대중은 그 때마다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만난을 극복하면서 헌신 분투하여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우리 당은 오늘 또다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할 력사적 과업을 앞에 놓고 전 당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고조를 위한 천리마의 대진군에로 힘차게 부르고 있다.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 들어 당 정책 관철의 선진 돌격대가 되는 것은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더 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다.

1956년 12월, 국내외 정세가 그처럼 어렵고 복잡하였던 시기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증산과 절약에로 부른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부문에 용약 진출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 나갔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 때 우리는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시비하던 수정주의자들, 당을 내부로부터 공격해 나선 종파 도당들, 보수주의, 소극분자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중공업을 건설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놓았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간고 분투하여 건설한 그 기계에서 지금 밥이 나오고 비단이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달성한 위대한 승리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이여! 붉은 편지를 받들고 다시 한 번 분발하여 천리마 대진군의 돌격대로 나서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며 당이 제시한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자!

머지 않아 우리는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는다.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여 당과 수령 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더욱 큰 로력적 선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청년들의 계급적 의무이며 애국적 행동이다.

민청 제 5 차 대회를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의 성과적 실천을 위한 보다 높은 로력적 열의로 맞이하자!

경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여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는 것은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이다.

청년들은 경공업 기지를 정비 확장하고 기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방 산업 공장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고 지방 원료 원천을 최대한으로 탐구 동

원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한다.

중공업 부문 공장들과 모든 생산 기업소들에서 생활 필수품 직장을 신설 확장하여 값 눅고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청년들은 돌격대로 나서야 한다.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특히 알곡을 증산하는 것은 명년도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중심 과업의 하나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논 면적의 대대적 확장과 치산 치수를 위한 대자연 개조에 적극 참가하며 2모작의 실시와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이 되여야 한다.

축산 부문 내 청년들은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는 초소에서 일한다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모든 지혜와 정열을 한 키로 그람의 고기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바쳐야 한다.

농촌 청년들은 호당 100~150 키로그람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군중적 투쟁의 선봉에 서며 축산업 발전의 기본 고리인 사료 기지를 원만히 조성하며 선진 사양 관리 방법과 속성 비육 방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적은 사료를 들이고도 보다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자면 계속 중공업을 밀고 나가야 한다.

당은 명년에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며 그것을 가일층 보강하고 완비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채취 공업 부문 내 청년들은 청년 착암공 대렬을 확대하고 고속도 굴진을 광범히 전개하여 갱 건설과 굴진을 생산에 결정적으로 선행시켜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명년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허천 청년 광산을 비롯한 새로운 탄광, 광산 개발 공사와 휴갱 복구 사업에 청년들은 광범히 진출하며 군중적인 지원을 조직하자!

기계 제작 공업 부문 내 청년들은 현존 설비의 리용률과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성능 좋은 각종 설비들을 많이 만들어 자체의 기술 장비를 튼튼히 꾸리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소요되는 각종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기술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킬 수 없으며 인민 생활도 향상시킬 수 없다.

기술 발전에서 앞장을 달려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다.

당은 지금 기술 혁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기술 혁신 운동의 선두에 서서 모든 부문에서 손로동과 락후한 기술을 퇴치하며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어데서나 기계로 일하게 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하는 그 어데서나 생산 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설비 리용률을 높이며 기술적 창안을 광범히 전개하여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자!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여 모든 청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며 기능 급수를 높이여 젊은 기사, 기수의 대렬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시기에 나라와 인민을 위한 고상한 애국심은 바로 국가와 사회 재산을 극력 아끼고 절약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나라의 주인다운 립장에 서서 나라와 인민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고 그것을 더욱더 유족하게 하기 위하여 전심 전력을 다하며 한 그람의 철, 한 오리의 실, 한 토막의 목재라도 더 절약하며 한 가지의 질 좋은 제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되는 대로 일하는 낡은 관점을 철저히 없애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성심 성의로 더 알뜰하고 쓸모 있게 만들겠다는 높은 자각과 공산주의적 사상 관점을 가지고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을 엄격히 지켜 모든 제품을 튼튼하고, 보기 좋고, 쓸모 있게 만들며 급속한 시일 내에 제품의 질을 선진적 수준에로 올려 세워야 한다.

공격을 앞둔 전투원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사기는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새로운 전투를 앞두고 우리는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를 피와 살로 만들며 당의 모든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혁명적 기질을 소유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일체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 인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검박하게 생활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있는 것은 아껴 쓰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생산하고 건설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자!

오늘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백절 불굴의 혁명적 기질을 가진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고 풍부한 경험과 현대적 기술이 있다.

우리들이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용기백배, 기세도 새롭게 천리마의 대진군에 한결 같이 떨쳐 나선다면 무엇인들 못해내겠는가!

청년들이여! 오늘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당이 펼쳐 든 설계도는 그 얼마나 휘황하고 찬란한가!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제시한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혁명의 원쑤들을 짓부시자!



강선 제강소 강철 직장 민청로 천리마 청년 작업반장 김 부길

그것은 교대를 앞둔 시각이였다. 진 응원 직장장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신문이 쥐여져 있었다.

《동무들! 당은 우리를 또다시 새 전투에로 불렀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쳐 들었다. 그것은 당 중앙 위원회 4 기 7 차 전원 회의 보도가 실린 신문이였다. 우리는 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었다.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기하면서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채택하였다…》.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힘차게 두드리는 당의 목소리인가! 우리는 쇠'물을 녹이는 사나이들답게 얼싸 안고 돌아 갔다.

당이 제시한 이 력사적 과업이 수행되면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 데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이 현실로 될 것이 아닌가! 또한 조국은 현대적인 공업과 현대적인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 공업 국가에로 력사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남조선 동포들을 해방할 조국 통일의 그 날도 더욱 촉진되고 영웅 조선의 이름은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력사적인 과업을 수행할 사명이 우리 세대들에게 부과되였다.

돌이켜 보자! 우리가 언제 당의 부름을 받고 못 해 낸 일이 있는가!

우리 강선의 로동자들과 청년들만 해도 그렇다! 정전 직후 우리 제강소는 문'자 그 대로 폐허로 되였다. 원쑤들은 우리 공장 구내에만도 1만 여 발의 폭탄을 떨구었었다.

수상 동지께서는 정전된 지 1 주일만에 우리 제강소에 오시였다. 그 이께서는 파괴된 공장 구내를 돌아 보시고 한 그루의 백양나무 밑에서 공장의 복구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방침을 주시였다. 강선 제강소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원상 그 대로 복구하지 말고 더 현대적인 대야금 공장으로 복구 확장하자고 하시였다. 그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재와 설비도 없었다. 오직 붉은 두 주먹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일에 달라 붙었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면서 복구 사업을 다그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불과 40일만에 2호 전기로 (민청호)를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았다. 미제 원쑤들은 지난 전쟁에서 우리 제강소를 재'더미로 만들고 앞으로 조선 사람은 몇 십 년이 걸려도 이 제강소를 복구하지 못 한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 때 불과 40일만에 이러한 원쑤들의 망상을 짓부시고 놈들의 머리 우에 통쾌한 쇠'물 폭포를 들씌웠던 것이다.

우리가 5 개년 계획의 문턱을 넘어 서려던 시기—그것은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매우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었다. 《북진》 소동에 미쳐 날뛴 미제와 리 승만, 그에 장단을 맞춘 수정주의자들, 당을 내부로부터 공격해 나선 최창익 반당 종파 도당들, 게다가 우리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로력도 부족하였다. 이 때 보수주의, 소극분자들은 5 개년 계획을 할 수 없다고 뒤'걸음질까지 쳤었다. 허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결코 주저 앉지 않았다. 우리는 당의 력사적인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과 수상 동지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에로 궐기하였다. 천리마는 힘차게 발'굽을 떼였다. 하여 우리는 5 개년 계획의 첫해 강철 생산 계획을 전해보다 1.5배나 더 높이였으며 보수주의자들이 고집하던 공칭 능력을 타파하고 6만 톤의 설비에서 12만 톤의 강편을 뽑아 내였다.

또한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진 응원 작업반원들은 전국을 향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 들므로써 우리의 강선을 《천리마의 고향》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당과 인민을 공격해 나선 원쑤들에게 걸음마다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기세와 본때를 온 천하에 보여 주었다.

당은 오늘 우리들을 또다시 새 전투에로 부른다. 우리의 처지는 벌써 전후 재'더미 우에서 적수 공권으로 출발하던 때와는 다르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가 있다.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있다.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의 령도가 있다. 용기 백배, 기세도 새롭게 전진한다면 무엇인들 못 해 내겠는가!

새로운 천리마의 대진군—이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의 성숙된 요구이며 우리 나라 혁명 정세의 요구이다.

오늘 미제는 《평화》의 가면 밑에 남조선과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아부 굴종하면서 맑스-레닌주의와 혁명을 방해하고 있다. 혁명의 원쑤들은 백방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허나 어림도 없다. 우리는 지난날 어려운 시기에 항상 그러했듯이 다시 한 번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혁명의 원쑤들을 짓부셔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전원 회의가 명년도 제철, 제강 부문에 제시한 116만 7천 톤의 강철 생산 계획을 달성하고야 말겠다.

강철이 있어야 탄광, 광산 설비도 만들 수 있고 농기계도 만들 수 있다. 강철이 있어야 일용 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소재도 생산할 것이 아닌가!

우리 민청로의 청년 용해공들은 지금 명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금년도 계획을 다가 오는 12월 중순까지 끝내고 명년도 생산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새해부터 일별, 월별, 분기별 계획을 어김 없이 완수하겠다. 로의 설비 관리를 잘 하여 그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며 작업반원들의 평균 기능 급수를 6급에서 7급으로 높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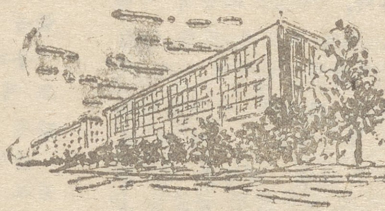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여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생산할 만단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생활은 부유하고 흥겹게 정신은 항일 투사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이렇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겠다. 우리는 지난 시기 보수주의, 신비주의, 소극성을 불사르고 천리마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 든 《천리마의 고향》의 전사들답게 당의 부름 따라 다시 한 번 천리마 대진군의 앞장에 서서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을 일으키겠다. 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혁명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고 견결한 우리 인민의 억센 의지와 힘과 본때를 보여 줄 것이다.

영웅적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기개를 떨치는 천리마 대진군의 혁명적 폭풍으로 혁명의 원쑤들을 짓부시자!

방문기

들끓는 심장들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을 찾아서—

서늘한 바람이 청년 거리 대통로 량 기슭의 무성한 푸른 가로수에 설렁거린다. 가을이 완연하다.

이윽고 우리는 동평양 강안동에 자리 잡고 있는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 정문 앞에 들어섰다.

《당 중앙 위원회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일용품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하늘 높이 5층으로 솟은 공장의 벽체에는 이런 구호가 나붙고 있었다.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이 웅장한 공장의 전들을 쳐다보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흐뭇하였다.

지난날 우리가 언제 이렇듯 훌륭한 일용품 공장을 가져 본 일이 있었던가! 옛날에는 연필 한 자루 변변히 만들지 못한 우리 나라다. 허나 오늘은 우리에게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강력한 중공업이 있음으로 하여 이렇게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큰 종합 공장을 가지게 되였고 인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일용품들을 수 많이 생산해 내고 있다.

우리는 먼저 염화 비닐 청년 직장을 찾았다. 직장 내는 참으로 장관이였다. 떡가루 같이 하얗고 보드라운 염화 비닐 원료를 아무런 여념도 없이 열심히 배합하고 있는 청년들, 그 배합된 염화 비닐 원료를 로루기에 넣어서 가소화시키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가소화된 염화 비닐 원료에서 염화 비닐 박막을 광목천만한 너비로 척척 뽑아 내고 있는 청년들, 모두가 능숙한 솜씨로 신나게 일하고 있었다.

이 직장 민청 위원장인 정 기수 동무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22인찌 로루기 넉 대를 가지고는 염화 비닐 레자를 직통으로 생산할 수 없다고 믿어 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로루기에서 가소화된 염화 비닐 원료를 온 하루 동안 묵였다가 다음 날에 가서야 그것을 다시 가소화시켜서 염화 비닐 레자라든가 박막을 겨우 뽑아 내군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년들의 집체적인 지혜로 작업 방법을 대담하게 고침으로써 하루에 지난날보다 1천 7백 평방 메터나 더 많은 레자를 만들어 내고 있지요!》

《아니 1천 7백 평방 메터를요?》

《그렇지요, 4 기 7 차 전원 회의 정신을 받든 심장들이니 어찌 혁신이 일어 나지 않겠습니까?》

정 기수 동무는 물'결처럼 쏟아져 나오는 염화 비닐 박막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 주었다.

《이제 이 레자라든가 박막은 이 웃층들에 있는 여러 직장들에서 각종 일용품으로 생산됩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아 2층에 올라 갔다.

여기에서는 염화 비닐 박판으로 각종 구럭을 뜰 수 있는 염화 비닐 실이며 혁띠, 비누'갑, 단추, 삼각자, 분도기 등이 생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합성 수지로 치솔'대, 머리'빗 같은 것들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치솔을 만드는 어떤 식모공들은 얼마 전까지 하루에 2,600 개 밖에 못 하던 식모 작업(자동 기계로 치솔'대에 털을 꼽아 넣는 일)을 지금은 3,300 개까지 해 내고 있었고 학생용 삼각자를 만드는 민청원들은 삼각자 압축 100 톤 프레스를 정비 완성하여 종전에 1,500~2,000 개 밖에 못 하던 삼각자를 지금은 하루에 2만 개까지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모두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더 빨리, 더 좋게, 더 많이 만들려는 하나의 지향으로 들끓고 있었다.

우리는 또한 자동 식모기 주위에서 비'자루로 마루'바닥을 쓰는 한 처녀를 만났다. 유심히 보니 그 쓰레기 속에서 식모 작업 때 떨어졌던 바늘 만큼씩한 나이론실 (치솔'대 구멍에 박아 넣는 털 대신에 쓰인다)을 골라 내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모아 두었다가 가열해서 머리'빗을 만들어 내지요. 우리는 지난 8월에도 이렇게 모아 두었던 나이론실로 2만 여 개의 머리'빗을 더 만들어 인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처녀는 방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 뿐이겠는가! 그들은 가방이나 케스 등을 만들 때 생긴 가위'밥들을 모아 재생시킴으로써 6만 여 개의 가방을 만들 수 있는 3천여 평방 메터의 레자를 생산하는 등 절약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는 다음 학생 용 가방, 부인 용 가방, 원형 가방 등 각종 가방들을 생산하고 있는 직장을 찾았다.

우리는 그 품종이 다종 다양함에 저으기 놀랐다. 색갈, 규격별로 무려 200 여 종이나 된다는 것이다.

김 애선 청년 작업반장 동무는 이런 말을 들려 주었다.

《어느날 우리는 제 1 백화점에 들린 일이 있었지요. 우리는 거기서 사람들이 주고 받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참 맵시 있게 만들었군, 이 가방은 어느 공장에서 만든 겁니까?〉

한 손님이 묻는 말에 젊은 녀성 판매원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에서 만든 거랍니다. 여간만 잘 팔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중년의 사나이가 매우 흐뭇해 하면서 그 가방을 사 들고 돌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 동무! 이런 때의 우리의 심정을 말하지 않아도 리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상점에 나가서 고객들과 판매원들의 의견을 듣군 합니다. 이 쟈크 트렁크라든가 려행 용 가방 그리고 저기에 있는 손'가방 등은 다 그들의 요청을 받고 우리가 고심끝에 만들어 내기 시작한 거랍니다. 아직 품종을 확대할 분야는 얼마든지 있지요. 얼마 전 우리 공장 민청에서는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민청원 한 사람이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품종을 한 건 이상씩 고안해 내기로 했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 수 많은 새로운 품종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 때 한 번 다시 와 주십시오!》

우리는 다음 4 층에 있는 일용 직장을 찾았다.

이 직장에서는 현대적인 염화 비닐 접착기와 고주파 재봉기를 가지고 가지각색의 비옷과 케스류, 포장 주머니, 랭상 모판지 등을 만들고 있었고 장미꽃, 공작새, 사과, 포도 등의 여러 가지 문양을 놓은 염화 비닐 박막으로는 책상'보, 식탁보, 카텐 등을 만들고 있었다. 직장 안은 그야말로 꽃바다와 같았다.

우리는 여기서 일용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 날은 비 온 다음날의 일요일이였다고 한

다.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직장 민청 위원장은 여니 때보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왔다. 그런데 웬 처녀가 고주파 재봉기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은 휴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옆에 가 보니 그는 접착공칠 성자라는 어린 기능공이였다. 그의 옆에는 고주파로 접착 련습을 하던 박막 쪼박들이 무둑하게 쌓여 있었다.

≪어떻게 되여 나왔소?≫

민청 위원장의 물음에 그 처녀는 말을 못하고 섰더니 이윽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위원장 동무, 내가 어저께 퇴근할 때였어요. 숱한 사람들이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들이 만든 비옷들을 입고요. 그런데 불쑥 코 앞에서 이런 말이 들려 왔어요.

<자 이놈의 비옷이 말이 아닌데…>

<왜?>

<접착이 잘 되지 않아 비'물이 조금씩 새는 데가 있거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굴이 화끈한 게 쥐구멍에라도 들어 갈 심정이였어요. 그것이 기능이 어린 내가 접착한 제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간밤엔 잠이 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접착 련습을 좀 하려고…≫

그 날부터 성자는 교대만 필하면 밤마다 직장에 남아서 접착 련습을 하였다는 것이다.

오로지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자각된 사람들만이 바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종전까지는 3% 정도의 오작을 내던 이 직장이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이 나온 후에는 오작품을 완전히 근절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공장을 전부 돌아 보고 났을 때는 서쪽 하늘에 저녁 노을이 붉게 탈 무렵이였다.

우리는 서느러운 바람이 불어 오는 보도우에 나섰다.

우리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 보았다. 직장에서 퇴근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돌아 오는 학생들, 어느 공원엔가 갔다가 돌아 오는듯한 유치원 어린이들의 긴 행렬, 저녁 한때의 보도는 소란하였다.

사람마다 자기의 직업과 년령에 따르는 가방을 들었고 비닐 구럭이며 트렁크 등을 들었다. 수지 제품 물통을 멘 유치원 어린이들, 이보다 연분홍색이며 록색, 연청색 등 가지각색 비옷들로 꽃을 피우는 비 오는 날의 보도우는 또한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지어 우리는 맞은켠 아빠트의 창문에 드리운 한 폭의 아름다운 카텐마저도 무심히 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실로 많은 것이 생각되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 옛날 극상해야 베옷 적삼이 고작이였는데 오늘 우리는 이슬비만 내려도 비단 옷에 염화 비닐 비옷을 받쳐 입고 다닌다. 귀여운 어린이들도 저렇게 잘 차리고 다닌다.

이 얼마나 변한 세상인가! 우리에게는 앞으로 보다 많은 철 제품들과 전기 용품 등 일용 필수품들이 차례질 것이다. 여름에는 서늘한 선풍기 밑에서 땀을 들이고 추운 겨울 수십벌의 빨래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세탁기를 갖추어 놓고 살게 되였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이는 오직 인민의 복리 증진을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이 있음으로써만 차례질 수 있는 행복이며 긍지인 것이다. 정말 우리 당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은 얼마나 위대한 생활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고 있는가!

본사 기자 김 학일



4 년이 지난 후



문덕군 립석 협동 농장 천리마 축산 작업반 민청원들에 대한 이야기

1959년 7월 어느 날 저녁, 한 무리의 청년들이 왕재'둥 기슭에 자리 잡은 축산반을 향해 걸음을 다우치고 있었다. 이들은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축산반으로 지원해 가는 청년들이였다.

≪얘, 찬옥아, 난 젖소 관리공이 되겠어, 저 등판에서 젖소들이 풀을 뜯구 나는 그 뒤에서 노래를 부르며 방목을 하고, 얼마나 멋지니!≫

방금 중학교를 졸업한 단발머리 명옥이가 하는 말이다.

≪응… 그것도 좋지만 난 토끼 사양공이 될 테 아유! 고 깜찍한 것들을 생각만이라도 해 보렴, 얼마나 귀엽니!≫

찬옥이가 하는 말…

지금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결의가 저 멀리 지평선 우에 비낀 저녁 노을처럼 붉게 타 오르고 있었다.

× ×

봄철에 접어 들자 사료가 떨어졌다.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농장 축산 규모를 갑자기 확대하다 보니 준비했던 씰로쓰며 건초가 땅도 채 녹기 전에 밑창이 났다.

민청원들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 눈 덮인 등판을 뒤지며 락엽들도 긁어 모았고 얼음을 까고 매일 160 여 키로나 되는 물'고기를 잡아 당장 필요되는 사료를 해결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 사료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달라 붙었다.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달려 오지 않았습니까. 혁명 선렬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을 본받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등판에 사료 기지를 조성해 놓읍시다…≫

어느 날 저녁 청년들은 왕재'둥 기슭에 모여 앉아 민청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들을 다졌다. 그 날부터 그들은 매일 기본 작업만 끝나면 등판으로 달려 나와 밤 늦게까지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네 시 축사에서 돌아 오던 세포 위원장 아바이는 건너편 기슭에서 나는 때 아닌 곡괭이 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한 자그마한 처녀의 그림자가 얼씬거렸다.

≪거 누구요?≫ 하고 아바이는 가까이 가서 물었다.

≪어마나! 깜짝이야.≫

뜻밖의 목소리에 놀랜 처녀의 손에서 곡괭이 자루가 떨렁 떨어졌다. 꼬마 젖소 관리공 박 춘옥이였다.

아바이가 짐짓 노한 체 하면서 일을 하루 이틀 하고 말겠는가고, 어서 들어 가 쉬라고 꾸중을 하자 춘옥이는

≪아바이, 전 오늘 계획했던 책임량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 어디 잠이 와야지요, 내 열른 마저 두 구덩이만 파고 꼭 들어 가겠어요.≫ 하면서 주눅 좋게 다시 일에 달라 붙는 것이였다.

세포 위원장 아바이는 그만 이 어린 처녀의

불 같은 열정에 깊이 감동되고 말았다.

이런 청년들이라면 무엇인들 못 해 내겠는가!

그들은 단 4일 동안에 그것도 기본 작업 시간 외에 웅덩이와 돌무지, 잡관목들로 웅성하던 왕재'등 기슭을 말끔히 정리하고 3천 여 개의 호박 구덩이를 파 제꼈다. 그리고 구덩이마다에 거름을 담뿍 내여 해마다 150 톤 이상씩의 풍만한 수확을 낼 수 있는 호박산을 조성하고야 말았다.

그 밖에도 이 곳 민청원들은 불과 하루 동안에 큰 선돌 고개 마루에 5 정보나 되는 아까시야밭을 조성했으며 시간 외 로동으로 건평 총 2천 여 평방 메터에 달하는 젖소사며 토끼사, 돈사, 계사, 사료 조리실 등을 아담하게 건설해 놓음으로써 농장 축산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구축해 놓았다.

× ×

어느 날 토끼사에서는 몇 마리의 새끼토끼들이 또 죽었다. 처음 어미토끼 40 마리를 가지고 새끼를 내워 퍼그나 늘었던 것이 우기에 들어 서면서 매일 이렇게 병으로 몇 마리씩 죽고 나니 도루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말았다.

나어린 관리공들의 가슴은 칼로 어이는듯 아팠다. 찬옥이도 몹시 안타까왔다.

(어떻게 하면 토끼를 잘 기를 수 있을가?)

그러나 학교를 갓 나온 그들은 토끼에 대해서 너무도 아는 것이 적었다.

(우선 토끼에 대해서 알아야겠어. 토끼와 함께 살면서 정성 들여 기르노라면 새 방법들도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찬옥은 짬짬이 기둥, 나래, 가마니를 구해다가 토끼사 옆에 초막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아니 초막은 무엇하려 짓니?》

《야영 생활을 좀 할려구》

그는 동무들의 물음을 우스개'소리로 넘기며 일'손을 다그쳤다. 초막을 다 꾸린 날 저녁 찬옥은 남비, 이불, 쌀 등 간단한 살림 도구들을 가지고 그 곳에 이사를 왔다. 이 때 토끼사는 기본 축사에서 멀리 떨어진 으슥한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 날부터 그는 토끼들에게 자기의 모든 지성을 바치면서 진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는 어느새 매 토끼들의 성질이며 토끼 사양에 관한 지식들이 가득 적혀졌다. 그에 따라 관리 방법도 점차 달라졌다.

안 찬옥 동무의 모범을 본받아 돈사와 우사의 관리공들 속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일기 시작하였다.

양돈공 최 종근 동무는 2년 5산으로 더 많은 새끼돼지를 내워 모두 튼튼하게 키워 낼 것을 결심하고 어미돼지의 임신 후반기 사양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무등 애를 써가며 영양가 높은 사료를 구해다 먹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2년 5산에 한 마리의 폐사도 없이 매회 평균 14 마리의 새끼돼지를 키워 냈으며 생후 55일만의 새끼돼지 체중을 평균 16키로씩이나 보장해 냈다.

또한 젖소 관리공 정 명옥 동무는 어떻게 하면 빨리 소의 유방을 변화시켜 조선소에서도 젖을 많이 짤 수 있을가 하고 고심하던 끝에 동기 착유를 제기해 나섰다. 이 때 일부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차기까지 하였다.

《원 철딱서니 없는 소리 말아, 겨울에 그 추운데 무슨 젖이 나겠다고 괜한 고생을 하겠단 말이냐?》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다. 살을 어이는 듯한 추운 새벽 명옥이와 정실이는 손을 호호 불어 가며 젖을 짰다. 손'가락은 시리다 못해 감각을 잃었다. 손이 얼어 부풀어 올랐지만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 동기 착유시에 건포 마찰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들의 솜 동복까지 벗어 건포 마찰을 보장했다. 그들은 소의 먹성을 변화시키며 재식률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사료 조리 방법도 개선했다.

정성이 지극하면 바위 우에서도 꽃이 핀다고 그들의 토력은 헛되지 않았다. 명옥이는 그 해에 겨우 하루에 4~5 키로, 년간 극상 250 키로의 우유 밖에 짜지 못 하던 자기의 《10 호》소에서 1일 최고 15.7 키로, 년 1 톤 7백 키로의 우유를 생산하고야 말았다.

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관리공들의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는 한편 그들의 기능 수준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자 이 번에는 모

든 관리공들이 수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학습도 조직하고 수의사를 초청하여 강의도 받고 실습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관리공들이 웬만한 가축의 병들은 자체로 진단하고 주사도 침도 놓고 치료할 수 있게 되였으며 가축의 폐사률을 거의 근절시켰다.

× ×

《제길헐…》 원복이는 그만 부아가 났다. 아침에 십 리나 되는 수리 분조까지 두 차례나 뛰여 가 고쳐 온 고속도 분쇄기가 또 고장이 났던 것이다.

사실 최근에 와서는 가축 두수도 퍽 는데다가 풀이 쇠지여 조사료의 비중을 높이게 되니 한 대 있는 고속도 분쇄기를 가지고서는 늘 사료 분쇄가 딸렸다. 그런데다가 자꾸 고장까지 나지 않는가!

사료 분쇄를 책임진 고 원복 동무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자기 때문에 조리공들이 애를 태우는 것만 같아서 몹시 초조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가 하고 고심하던 원복이는 농장 수리 분조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체로 새로운 형의 분쇄기를 또 한 대 만들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자기가 결심한 바를 초급 민청 단체에 제기하였다. 집행 위원회는 그의 발기를 적극 지지해 주었으며 그를 분쇄기 제작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막상 분쇄기를 만들자고 하니 기계 기술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그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을지 막연하였다.

그는 침식을 잊고 밤낮 없이 수리 분조에 가서 살다 싶이 하면서 기술자들에게서 기술도 배우고 조언도 받았으며 민청원들의 방조로 필요한 자재도 모았다. 원복이의 지극한 지성에 감동되여 기술자들도 팔을 걷고 도와 나섰다.

약전 고루의 15일, 만능 분쇄기 조립도 거의 끝나 갈 무렵이였다. 관리 위원회에서 보장 받기로 한 50 미리 베아링이 걸리여 조립은 중단되였다.

원복이는 도저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온 농장을 다 뒤지기 시작했다. 이미 땅거미 질 무렵 일곱 번째만에 찾아 간 5 작업반 마을에서 못 쓰게 되여 한 구석에 놓여 있는 탈곡기에서 그렇게도 찾던 50 미리 베아링을 찾아 내고야 말았다. 원복이는 너무도 기쁜 김에 그 무거운 탈곡기를 그 대로 성큼 지고 그 달음으로 달려와 끝내 그 날 밤으로 조립을 완성하고야 말았다.

웡! 경쾌하게 분쇄기는 돌아 갔다. 그의 마음은 훨훨 하늘로 날아 오를 것만 같았다. 그가 만든 분쇄기는 본래의 것보다 5 배의 능률을 냈다. 이리하여 조사료 문제는 해결되였다.

이와 같은 경험에 토대하여 이 곳 민청 단체에서는 축산 작업의 전면적인 기계화에 달라붙었다.

청년들은 50 여 리도 넘는 곳까지 다니며 레루와 밀차 바퀴들을 구해다 사료 조리장으로부터 우사며 돈사, 퇴비 적치장에 이르는 총연장 400 메터나 되는 전 구간에 레루를 놓아 사료 급여와 퇴비 운반을 모두 기계화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곳 축산반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만능 분쇄기며 배추 절단기 뽐뿌아 장치 등 10여 대의 기계들을 만들어 사료 분쇄와 그의 조리 가공 등을 흐름식으로 기계화하였다.

또한 세 개의 오리제균 처리 탕크도 만들어 모든 사료를 오리제균 처리와 누룩 처리하여 먹이고 있다.

× ×

1959년 7월 이 곳 립석 마을 청년들이 왕재'등 기슭의 축산반을 향해 걸음을 다그치던 그 때로부터 4 년이 지났고 그새 그들은 실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새끼돼지 생산량 4 배, 우유 생산량 10 배, 토끼 180 배…

어찌 축산률 생산량만 장성하였으랴! 당의 축산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람도 자랐다. 어제'날의 단발머리 민청원이였던 안 찬옥이며 고 원복을 비롯하여 6 명의 민청원들이 로동당원으로 되였으며 안 찬옥 동무는 《민청 창립 10 주년 기념 청년의 영예상》을 받았다.

3 명이 기수 검정 시험에 완전히 합격하고 11 명이 일부 과목 합격자로 자라났다.

지금 이 곳 민청원들은 력사적인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붉은 편지를 받들고 전체 인민이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에 진입하여 련일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사 기자 김 영길



젊은 심장에 불을 지폈을 때

—룡천군 룡송 협동 농장 제 8 초급 민청 단체에서—

민청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는 더 숙자 동무의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다. 밤'비는 억수로 내리건만 그래도 깊은 생각에 잠긴 그는 그 것마저 감각 못 했다.

(내가 왜 이럴가?)

그는 몇 번이고 자기 마음을 가라 앉히려고 하였으나 도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는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으로 선거된 자신을 원망하기까지 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처럼 속을 태워야 하는 것도 자기가 바로 위원장으로 선거 받은 탓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처음엔 그도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달라 붙었었다. 농장적으로 기중 뒤떨어진 초급 민청 단체를 한 번 본때 있게 추켜 올려 보자는 것이였다.

그는 눈 비도 가리지 않고 짬짬이 민청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였고 그들의 일을 도와 주었다. 작업반 앞에 새로운 과업이나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는 지체 없이 민청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풀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의논하기도 했다. 그러면 일은 잘 돼 나갔고 자리도 푹푹 났다. 학습도 모두들 이마를 맞대고 잘 해 나갔다. 민청 조직 생활은 민청원들에게 자기들이 하는 일의 보람을 자각하게 했고 생활에서 환희를 주었다.

그러던 것이 요사이 와서는 한 사람의 민청원 때문에 애를 먹게 된 것이다. 그것은 숙자네 초급 민청 단체 민청원인 김 동무 때문이였다.

그는 무엇 때문인지 요즘에 와서 퍽 달라졌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걸핏하면 슬그머니 사라졌고 학습회나 모임 때에도 이 구실 저 구실로 빠지기가 일수였다. 확실히 그는 자기 일과 자기 생활에 마음을 붙이지 못 하고 있었다.

숙자 동무는 이런 김 동무를 교양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적지 않게 애도 써 왔다.

그의 성격에 맞는 일을 골라서 시켜도 보았고 그가 즐기는 체육 경기도 직접 그를 통해 자주 조직해 보기도 했다. 때로는 그와 함께 보'둑길을 거닐면서 농촌 청년들의 두 어깨에 지워진 숭고한 사명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했고 고향의 옛'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이 겪은 옛 수난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러던 김 동무가 요 며칠째 동무들과는 척을 쌓고 도무지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숙자 동무로서는 분한 일이였다. 어쩌면 그렇게 민청원으로서 조직과 동무들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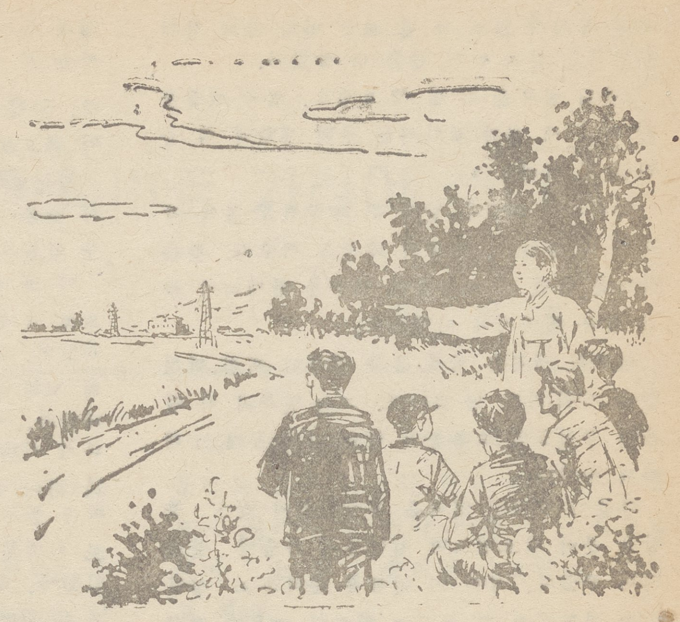
집에 돌아 온 숙자는 밤 깊도록 잠 들지 못했다. 그는 김 동무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과연 그의 병'집을 몰랐던가? 아니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의 병'집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그의 병'집은 그가 생활에서 안일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다. 그러면 그 병'집을 고쳐 주기 위해 나는 민청 위원장으로서 과연 무엇을 했던가?)

이튿날 새벽, 숙자 동무는 당 위원장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숙자 동무는 그저 자신이 끓고만 있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필 줄을 모르거든, 김 동무를 두고 보더래도 그렇지. 그는 어제'날의 머슴의 아들이야, 그의 가슴에 불을 한 번 지펴 보지? 그도 끓을거야!》

숙자는 밤새 생각하면서도 끝내 잡지 못 해 애타기만 하던 그 어떤 줄을 붙잡은 것만 같았다.



이 날부터 숙자 동무는 마을의 옛'일을 잘 아는 늙은이들을 찾아 다니며 옛'날 지주놈들의 죄상과 우리 부모들의 억울했던 과거 생활을 하나하나 캐여 물었다. 그 중에서도 김 동무의 부모가 걸어 온 과거 수난의 길을 그는 깊이 료해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민청원들을 마을 뒤'산 밤나무 밑에 모이게 하였다. 그들 속에 김 동무도 섞여 있었다.

그들이 자리 잡은 곳에서는 덩실하니 큰 옛날 지주집이 바라다 보였다.

민청 위원장인 숙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동무들 생각엔 저 집에서 몇 세대나 살 것 같애요?》

《한 삼십 세대야 넉넉히 살겠지요》

《그래요, 왜정 때 지주놈들은 저렇게 큰 집을 독차지 하고 호의호식 했대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집도 아닌 갈막에서 헐벗고 굶주렸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였어요. 저 집에 도사리고 앉았던 지주 김 기홍이란 놈은 김 웅철이란 소작인을 짜 먹다 짜먹다 못해 나중에는 그의 외아들마저 굶주려 죽게 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악마였어요.》

민청원들의 눈은 원쑤에 대한 증오로 불탔다.

그런데 지주 없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우리는 복 중에 살면서 복을 잊지 말아야 해요. 만일 우리가 과거 우리 부모들의 옛 처지를 잊어 버리면 안일한 생활만 추구하게 되구, 나중에는 개인 리기주의에 물젖어 혁명도, 남조선 인민들도 다 잊어 먹을 수 있어요.》

숙자의 이 말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이 날 밤 숙자는 김 동무를 개별적으로 만났다. 그의 자존심을 생각해서였다.

김 동무 생각해 봐요. 동무의 부모님들이 그 옛날 그 지주놈들한테서 어떻게 천대 받으면서 착취 당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좋은 고향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해요. 누구도 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처럼 고생하고 그처럼 억울히 살아 온 부모님들한테 그 많은 일을 맡기구 그래 동무는 어데를 가자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선가요? 안일한 일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로운 일인 줄 아세요? 마음을 돌려요. 같이 일하자요》

김 동무는 한 마디의 대'구도 아니 하고 말없이 발'길을 돌렸다. 숙자는 애가 또 탔다.

《김 동무 왜 말이 없어요? 왜 돌아 가요!》

그러자 비로소 김 동무는

《다 알고 있소. 래일부터 일하러 가면 되지 않소?》

하고는 그 대로 돌아 가 버렸다.

과연 이튿날 그는 일하러 나왔다. 숙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날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를 열고 이런 안을 내 놓았다.

《우리 연극을 한번 해 보자요. 연극 써클을 잘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생활에 퍽 유티할 것 같애요.》

이리하여 그들은 얼마 후 농장원들 앞에 연극을 내 놓았다. 연극의 내용은 지주의 갖은 학대를 받던 한 고용농이 원쑤를 반대하여 총을 잡을 때까지의 이야기다.

연극의 대본은 숙자 동무 자신이 직접 며칠 밤을 새워 가며 쓴 것이다. 그는 일부러 이 연극의 주인공인 고용농의 역을 김 동무가 수행하게 하였다.

그들이 준비한 연극은 농장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 주었다. 특히 이 연극을 준비하고 상연하는 과정에서 김 동무는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심각히 뉘우치게 되였다. 더우기 그의 아버지가 연극을 보시고 돌아 와서 아들에게 한 말은 김 동무로하여금 그 날 밤 잠을 이루지 못 하고 깊이 자신을 후회하게 하였다.

《너희들은 오늘 밤 연극을 참 잘 했다. 이 애비는 지난날 그렇게 살아 온 과거가 회상되여 눈물까지 흘렸다. 그런 세상이 다시는 못 오게 일을 잘 해야지. 너처럼 젊은이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이였다. 며칠을 련거퍼 세차게 비가 쏟아져 내린 바람에 마을 앞 제방'둑 한 지점이 그만 터져 나갔다. 이런 소식을 들은 청년들은 저마다 달려와 몸으로 둑을 막았다.

청년들이 제방의 위험을 막기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은 것을 숙자는 후에야 알 수 있었다.

이 날 밤 김 동무는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둑이 위험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곧 안 기곤, 계 일선, 리 도희 동무들을 깨워 가지고 둑으로 달려 나갔다. 아니나 다를가 벌써 둑 한 쪽이 터져 나기 시작하였다. 김 동무는 주저 없이 물 속에 뛰여 들어 자기 몸으로 세찬 물을 막았다. 다른 동무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겯고 사품치는 물 속에 굳건히 서 있었다. 불어 나는 물은 더욱 세차게 떠 밀었으나 그들은 물러 서지 않았다.

얼마 후 숙자 동무는 제방을 구원해 낸 청년들 속에서 빙그레 웃기만 하는 김 동무를 보며 정말 사람이 어쩌문 저리도 달라졌을가? 하고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 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 젊은 심장에 불을 지폈을 때 그것은 태산도 허물고 강물도 막아 서는 커다란 힘을 낳는 것이다.

본사 기자 하 만춘

청년생활 소사전

비누는 어떤 작용으로 때를 지우는가?

때를 지우는 과정은 대체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즉 때 립자를 옷이나 몸에서 떼여 내고 그것을 물에 녹이며 다음 녹아서 물에 떠 있는 때가 다시 옷이나 몸에 붙지 않도록 씻어 버리는 작업 등이다.

여기서 첫 단계는 때 립자와 옷 사이 또는 때 립자와 피부 사이에 물 혹은 다른 분자들이 들어 가서 불어 나는 과정이다. 때문에 빨래'감을 미리 물에 적셔 두면 보다 빨리 때를 지울 수 있다.

그러나 물의 온도나 그 성분 여하에 따라 불어 나는 속도가 달라진다. 우리는 이 속도를 더운 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어떤 약제를 넣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빨라지게 한다.

다음 단계부터는 비누에 의하여 진행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누는 지방산과 알카리로 만든다. 따라서 비누가 물과 작용하면 다시 가성 알카리를 만든다.

이 가성 알카리는 때 속에 있는 지방과 작용하여 때 립자들을 물에 녹여서 분리시킨다. 이렇게 하여 옷이나 몸에 묻은 때를 떼 놓은 다음에는 그것이 다시 붙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비누를 사용할 때 생기는 거품이 수행한다. 즉 거품은 분리된 때 립자들이 물에 씻겨 내리도록 해준다. 이로부터 거품이 잘 일지 않는 비누는 때를 깨끗이 지워 버리지 못 한다.

벗과 원쑤를 똑바로 가려야 한다

전 기 홍

벗과 원쑤를 똑바로 가린다는 것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로 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혁명의 동력과 대상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질 때만이 혁명을 촉진시키며 혁명 승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벗과 원쑤를 똑바로 가린다는 것은 로동 계급이 어느 계급 어느 계층들과 손을 튼튼히 잡고 어느 계급을 반대하여 싸울 것인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혁명 투쟁에서 벗과 원쑤를 명확히 식별하지 않을 때 혁명에 주는 손실과 해독은 실로 크다.

만일 혁명의 벗을 무원칙하게 의심, 경원하거나 원쑤로 간주한다면 혁명을 지지하며 로동 계급을 따라 올 수 있는 벗을 잃어 버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혁명 력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대로 혁명의 원쑤와 타협하거나 그들과의 무원칙한 친선, 무원칙한 단결을 표방한다면 혁명 력량은 적들의 공격에 의하여 아무 때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무력한 력량으로 되게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적 앞에서의 무장 해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벗과 원쑤를 똑바로 가리는 문제는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 전술 상 원칙으로 되며 이는 혁명 승리를 담보하는 기초로 된다.

그러면 벗과 원쑤를 가리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혁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즉 우리 혁명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두어야 한다.

벗과 원쑤를 식별함에 있어서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것은 로동 계급의 리익에 기초한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이며 로동 계급의 립장이다.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의 전 행정에서 우리 당이 취한 계급 투쟁 방침은 계급과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각이한 단계에 상응하게 로동 계급의 령도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조성하는 동시에 혁명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군중들을 로동 계급의 주위에 결속시킴으로써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해방 전 조선 인민 앞에는 우선 일제를 반대하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반제 민족 해방의 과업이 나서고 있었으며 동시에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키는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이 나서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해방 전 우리 혁명의 적은 일제와 그리고 그와 야합한 조선인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였으며 혁명을 추진시키는 동력은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농민 대중이였으며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광범한 소자산 계급과 일부 민족 자본가들까지도 이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있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시의 정세와 제기된 혁명 과업에 기초하여 벗과 원쑤를 명확히 규정하고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한 항일 빨찌산 부대를 조직하여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 빨찌산 투쟁 과정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계급 투쟁 방침의 정당성은 특히 반민생단 투쟁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시 조중 인민의 혁명 대렬에 쐐기를 박아 그를 와해시키려던 일제의 음흉한 계책을 간파하고 반민생단 투쟁을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반민생단 투쟁에서 김 일성 동지는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협애한 주관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였다. 결과 광범한 력량을 혁명의 편에 집결시킬 수 있었으며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킬 수 있었다.

만일 당시 사람들을 무원칙하게 의심하거나 적대시하였다면 혁명 위업에 충실할 수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잃어 버렸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적의 편에 리익을 주는 것이며 혁명의 편에 엄중한 손실로 될 것이다.

반민생단 투쟁에서 확고하게 견지한 로동 계급의 립장으로 하여 항일 빨찌산 부대는 강철의 대오로 되였으며 그처럼 곤난한 조건에서도 15여 성상이나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적과 싸웠으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달성할 수 있였다.

8.15 해방 후 국토의 량단으로 인하여 조성된 우리 나라의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 하에서도 우리 당은 계급 투쟁에서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인민 앞에는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의 앞잡이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 자본가, 친미파를 반대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제국주의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 민족적 과업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이 아직도 전국적 범위로 보아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 동력은 이미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과 남반부의 로동 계급, 농민, 미제와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광범한 소자산 계급이며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민족 자본가들이다.

그러면 혁명의 원쑤는 누구인가. 그것은 미제와 그리고 그의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이다.

미제는 특히 조선 혁명에서 가장 큰 적이며 남북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 가지 않는 한 우리 조국은 통일될 수 없으며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줌도 못 되는 국내의 반동 세력은 미제의 비호 하에서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반동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광범한 혁명 력량을 집결하여 북반부의 민주 기지 강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벗과 원쑤를 정확히 밝히고 혁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관철하여 온 계급 투쟁 방침의 훌륭한 모범은 반혁명과의 투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발전의 력사적 특성, 전쟁에 의하여 조성된 계급 관계의 복잡성, 제기된 혁명 과업을 정확히 분석한 기초 우에서 반혁명과의 투쟁을 진행하였다.

우리 당은 반혁명과의 투쟁에 있어서 결코 그 어떤 복잡한 가정 환경이나 성분, 경력 관계를 표징으로 삼지 않았다. 환경이나 성분 문제에서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적대시한다면 결국 적 아를 똑바로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무고한 인민들—우리의 벗들을 원쑤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적 아를 식별하는 기준을 그 어떤 선입 주견이나 추측에 의거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동에 의거하였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혁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함에 기준을 두었다.

이리하여 당과 인민을 반대하는 극소수의 악질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처단하고 대다수의 피동분자들을 대담하게 포섭함으로써 계급 투쟁에서 실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당은 군중 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우선 사람을 대담하게 믿고 아량 있게 포섭하며 실천을 통하여 교양 개조하는 당'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광범한 혁명 력량을 자기 주위에 반석 같이 굳게 묶어 세울 수 있었으며 혁명의 원쑤들을 고립시키고 혁명 군중을 단결된 력량으로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 동원할 수 있었다.

이상의 제반 사실은 우리 당이 취한 방침이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특수성, 제기된 혁명 과업의 요구를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하여 계급과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구현한 산 모범으로 되며 그것은 천백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우리 당은 이러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물리치고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거대한 사회 경제적 변혁들을 짧은 기간에 이룩할 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나라의 번영과 륭성의 길을 열어 놓을 수 있었다.

벗과 원쑤를 똑바로 가리는 문제는 비단 한 나라 혁명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 국제적 범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로동 계급의 전략 전술의 원칙으로 된다.

그것은 지구 상에 아직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사회주의는 일부 나라에서만 승리하였으며 이리하여 국제적 범위에서의 치렬한 계급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제국주의 세력들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의 대렬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각종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열삼고 있으며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압살하기 위한 투쟁을 로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현 시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애호 력량을 통일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폭로 분쇄하며 그들에게 각 방면으로 되는 타격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평화의 교살자로, 국제 반동의 지주로, 세계 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로 되고 있는 미 제국주의를 고립시키며 그들의 온갖 침략적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벗과 원쑤를 똑바로 가리는 문제는 가장 절실한 문제로 된다.

우리가 오늘 벗과 원쑤를 똑바로 가리지 않는다면 세계 혁명의 강력한 력량으로 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애호 력량을 단합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의 원쑤 제국주의를 폭로 분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형제 당들에 대한 공격과 무근거한 중상 비방을 로골화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며 다른 편으로는 제국주의에 아부 굴종함으로써 벗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원쑤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및 약소 국가 인민들을 지지 원조할 대신 그들을 경시하고 고롱스럽게 함으로써 벗을 저바리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원쑤들에게는 리익을, 벗들에게는 엄중한 손실을 주는 반동적 책동이다.

원쑤가 누구이며 벗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식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쑤와의 타협의 길로, 투항주의의 길로 굴러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그것은 제국주의 앞에 로동 계급을 무장 해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는 현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가 변하였다는 이러 저러한 구실을 늘어 놓으면서 벗과 원쑤를 혼돈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비계급적이며 반맑스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국주의의 롱락물로, 주구로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계급 의식을 더 한층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장구한 기간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오직 이 투쟁을 통하여서만이 혁명의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 투쟁에서 적아를 명백하게 식별하고 계급적 원쑤를 증오할 줄 알며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견결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우기 혁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직 적대 계급의 본성과 그의 착취적 성격, 교활성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점차 교체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이들을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극히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계급 의식을 일층 제고함으로써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 서야 한다.



제국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3)

최 승 섭

오직 손 발을 얽어 매여야 한다

우리는 이상에서 제국주의 본성으로 되는 교활한 침략, 략탈 그리고 착취를 똑똑히 알았다. 그리고 그 본성이 나오는 뿌리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았다.

제국주의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침략과 략탈, 착취의 본성이 절대로 없어질 수도,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눈을 가졌어도 눈'방울이 없는 혁명의 변절자 혹은 제국주의의 사환'군들인 현대 수정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오늘의 제국주의 본성이 《변했다》느니, 《온순》해졌다느니 하면서 지껄이고 있다. 즉 제국주의의 《원조를 받아 후진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다》느니, 《인민적 자본주의로서 계급적 모순이 점차 없어진다》느니 하면서 제국주의를 극구 미화 분식하고 있다.

마치 이 자들은 언제 자기를 해칠 지 모르는 놈에게 아첨하는 자를 비유하여 쓴 정 다산 선생의 다음의 글과 신통히도 같다.

양 잡아 삼키는 호랑이 주둥이
시뻘건 피칠이 마르지 않건만
호랑이 위신만 추기고 받들며
여우와 토끼는 찬사를 드린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그의 앞잡이 현대 수정주의자들도 동시에 때려 부셔야 한다.

그러면 그들을 때려 부시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우리의 투쟁이 꼭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져야 한다. 승리의 신심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는 투쟁하려는 대상 즉 제국주의를 잘 알고 옳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의 제국주의는 어떠한가?

그는 겉으로는 힘 세고 불패인듯이 보이나 사실은 그 속이 썩고 있으며, 그 힘이 약하며 무서운 것이 못 된다. 즉 제국주의 내부에서 독점 자본가들은 놀면서도 잘 먹고 잘 쓰면서 부화 방탕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도, 생산도 발전되지 못하여 근로자들은 헐벗고 굶주리

고 있다. 그리하여 로동 계급은 독점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이렇듯 그 내부는 썩고 있으며 약하다.

그리고 밖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 발전되여 제국주의의 략탈과 침략의 지반이 좁아지므로써 그들끼리 개싸움이 더 심해졌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한 영향 하에 식민지 나라들에서 민족 해방 투쟁이 더 세차게 일어 나고 있으며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력량은 제국주의의 숨통을 시시각각으로 짓누르고 있으므로 그는 죽어 가는 시기에 처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제국주의다.

그런즉 우리는 능히 제국주의를 때려 부실 수 있으며 거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와 직접 투쟁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대하고 철저하게 투쟁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제국주의는 죽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으며, 그의 힘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정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죽음에 림하여 더 악랄하게 발광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아직도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를 없애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투쟁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제국주의를 잘 알고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만약 제국주의의 속을 못 보고 겉만 보면 그를 과대 평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속이 썩은 것을 못 보고 강한듯한 것만 본다거나 또는 그 속이 약한 것을 못 보고 허울에 나타난 흉악한 것만 보는 것이다.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그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자들은 제국주의에 굴복하고 아부하면서 갖가지 아양을 떨고 있다.

한편 제국주의의 겉은 못 보고 그 속만 보면 그를 과소 평가하게 된다. 즉 제국주의를 늙어서 죽어 가는, 병이 골수에 배긴 늙다리로만 보는 것이다. 또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평가하고 제국주의가 저절로 죽을 것이라고 망상하면서 그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가장 유해로운 견해이다.

그러면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주되는 대상은 누군가?

그것은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이며 세계 반동의 아성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인 미 제국주의이다.

미제는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다.

오늘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는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파괴, 암해 활동을 끊임 없이 계속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을 략탈하고 온갖 만행을 다 감행하는 강도들이다.

그러면 제국주의와의 투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온갖 투쟁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타격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손발을 꼼짝 못하게 얽어 매 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본성 대로 날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하자면《오직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김 일성)해야 한다. 또한《모든 평화 력량을 튼튼히 결속하고 온갖 투쟁 방법을 배합하여 도처에서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타격을》(김 일성)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본성을 엄폐하고 있으며 그의 앞잡이들인 각종 기회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미화 분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의 기만 책동에 대하여 폭로하며 경각성 있게 투쟁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음모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들의 침략 행위를 계속 철저히 폭로 분쇄하여야 합니다.》

이런 투쟁과 함께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엄폐하며 더욱더 조장시켜 주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지껄임을 폭로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며 대중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은 꼼짝 못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략탈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도 타산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침략과 략탈, 세계《제패》를 위해 발광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조선에 도사리고 있는 미제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노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어느 때에 달려 들어도 제때에 백배 천배로 쳐부실 그런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태세란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항상 준비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 빨리 더 잘 건설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난공 불락의 요새로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적들로 하여금 감히 덤벼 든다 하여도 단매에 때려 눕혀야 한다.

또한 우리는 혁명적 계급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한 손에 총을,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안일과 부화를 반대하면서《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사상으로 자기 맡은 초소를 튼튼히 지켜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와 지상 락원인 공화국 북반부를 적으로부터 보위할 수 있다.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은 더욱더 새 힘을 얻고 일떠 서게 되며 미제는 남조선에서 더는 배겨 내지 못 하고 물러 가게 될 것이다.

혁명 전사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

최원종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에 대한 정확한 태도를 가지는 문제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 수양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의 두 측면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며 이 량자에 대한 태도는 바로 세계관과 관련된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바와 같이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에 대한 태도도 역시 각이한 계급에 따라 각이하게 표현된다.

물질 생활이란 의식주와 관련되여 있다.

의식주 문제는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인 만큼 물질 생활은 인간 생활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 형편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며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는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 대중에게 초보적인 물질 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착취 사회를 전복하고 근로 대중에게 착취와 빈궁과 실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유족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력사적 사명으로 간주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개인의 물질 생활을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 속에서 보며 근로 대중이 착취와 빈궁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의 물질 생활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해방과 물질 생활의 개선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인민 대중의 사회적 해방이 실현되지 못 한 조건에서 개인이 빈궁과 실업을 면할 길이란 없으며 나라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 할 때 개인의 넉넉한 생활은 보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근로 대중의 사회적 해방과 자기 계급과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는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남을 희생시키고 근로 대중의 리익에 손실을 주면서 자기 개인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죄악으로 인정하며 그를 철저히 배격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남의 덕으로 살아 나가려는 태도를 배격하며 자기의 힘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는 자립적 태도를 견지한다.

공산주의자들의 물질 생활에 대한 태도는 정신 생활에 대한 그의 태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입고 먹고 집을 쓰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생존에서 선차적인 문제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물질 생활과 함께 고상한 정신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배 불리 먹고, 잘 입고, 향락을 누리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은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치에 대하여 그리고 도덕, 예술, 철학 등에 대하여 이러 저러한 견해와 사상을 가진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제도에 대하여 자기 인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일정한 념원과 리상을 가지며 또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인류의 최고의 리상을 실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더구나 높은 정신 생활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자체가 본래 안락한 현재 생활이 아니라 미래를 사랑하는 그러한 고상한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가들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활한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위하여 온갖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고귀한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고상한 정신 생활이 유족한 물질 생활과 결합될 때에 진실한 인간적 행복을 느낀다.

고상한 정신 생활의 안받침 없이는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의 급속한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혁명적인 사상 정치 의식과, 고상한 도덕적 기풍은 혁명을 전진시키며 생산을 촉진케 함으로써 물질 생활의 급속한 개선을 가져 올 수 있게 한다. 남보다 빨리 나가려 하며 남이 한 걸음 걸을 때에 백 걸음을 걸으려는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정신, 자체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의하여 혁명 승리를 달성하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낼 수 있게 함으로써 물질 생활에 기적적인 변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정신 생활을 물질 생활만 못지 않게 중요시 하며 특히 혁명기에 있어서 부화와 안일을 배격하고 검박하게 살며 필요한 때에는 당면한 물질 생활의 궁핍도 이겨 내면서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물이 있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살았고 원쑤들과 싸운 항일 빨찌산 투사들에게서 훌륭히 발양되였다.

항일 빨찌산들이 어떻게 15 여 성상이나 그처럼 간고한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곤난도 이겨 내는 불굴의 혁명 정신과 락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혁명 전사들이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에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의식적 활동으로 건설하는 것이지 돈이나 벌고 밥이나 먹겠다는 의식을 가지고는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착취 계급들 지주, 자본가들의 물질 생활에 대한 태도는 개인 리기주의로 표현된다. 그들의 안중에는 개인의 물질 생활에 대한 관심, 개인의 부귀 영화, 개인의 탐욕과 권세 밖에는 없다. 그들의 생활 태도는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남은 죽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태도이다.

지주, 자본가들은 남을 착취하고 략탈하는 방법으로 자기만이 배 불리 먹고 호의 호식한다. 그들의 물질적 탐욕에는 한이 없으며 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맑스는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0 프로의 리윤이 보장된다면 자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20 프로의 리윤이라면 자본은 활기를 띠며 50 프로라면 적극적으로 대담해지며 100 프로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유린하며 300 프로라면 자본에게는 단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

지주,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유족한 물질 생활을 위하여서는 온갖 정신 생활, 온갖 도덕과 륜리도 서슴 없이 내던진다. 부자 간의 의리도 우정도 사랑도 돈과 바꾸기를 서슴지 않는다.

인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동물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착취 계급들에게서는 정신 생활이란 말은 감히 꺼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이다. 끝 없는 탐욕과 리기주의, 허위와 기만, 사기와 위선, 저속한 취미, 퇴폐적이고 말세기적인 향락주의와 부화 방탕, 패륜과 도덕적 타락, 잔인성과 인간 증오—이 모든 것이 그들의 정신 생활의 내용으로 되고 있다.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에 대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태도 역시 지주, 자본가나 제국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근로자들과 청년들 속에서 정치 사상 사업을 하지 않고 물질적 관심에 대한 자극만 고취함으로써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조장시키고 있다. 그들은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당성, 계급성을 배제하고 부패 타락하고 무기력한 부르죠아 사상을 찬양하고 퇴폐한 부르죠아 생활 양식을 광범히 류포시키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살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혁명 투쟁을 회피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에 아부하고 굴종하면서 청년들에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정치 투쟁도 사상 투쟁도 그만 두고 매 순간 자기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설교한다. 수정주의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며 타락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청년들이 타락의 구렁이에 들어 가고 있으며 참을 수 없는 패덕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승용차와 별장을 가지는 것이 자기의 최대의 리상이라고 떠벌리는 혁명의 타락 분자가 생겨 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인간의 온갖 가치를 저바린 범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수정주의적 독소에 물젖은 어느 나라의 청년은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있다. 《배 터지게 먹는 것, 곤드라지게 마시는 것, 술'집을 찾아 가는 것, 영화를 구경하는 것, 미친듯이 차를 모는 것, 멋진 쟈케트, 새 춤, 새 미국 노래—이것이 생활 요소다.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으면 만사는 나의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부르죠아지와 제국주의자들의 생활 양식을 찬미하며 그에 추종하는 목적은 결국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그만 두자는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을 자본의 압박과 착취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려는 고상한 지향과 리상에서 물러 서게 하며 개인의 물질 생활에만 급급하게 하며 돈과 물질 생활의 향락 밖에 모르는 타락된 부르죠아적 생활에로 돌려 세우려는 데 있다.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에 대한 태도 문제,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 립장 문제이다.

우리 청년들은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에 대한 혁명적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 자체의 사상 도덕 수양에 부단히 힘 써야 한다.

청년들은 우선 로동 계급의 철저한 계급 의식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해방 후 비교적 평온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 났으며 착취와 압박을 직접 체험하지 못 하였으며 가렬한 혁명의 불'길 속에서 단련이 아직 미약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함께 우리 청년들은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을 배격하고 자기 행복을 자기 손으로 창조하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견지하며 개인 리기주의, 고용살이 근성, 건달 습성 등 일체 낡은 사상 잔재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양풍과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혁명을 좀먹고 전진을 저애하는 안일과 부화를 반대하며 혁명하는 나라의 젊은이답게 물질 생활이 유족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정신만은 언제나 백두산에서 항일 빨찌산이 싸운 혁명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다 검박하고 활기 있게 생활하여야 한다.

만약 어렵고 쉬운 일을 가린 다음에 실행한다면 이는 충성심이 없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을 따진 다음에 행동한다면 이는 비겁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박 제상—



학습에서의 분석과 종합

리 재경

우리는 주위 세계의 사물 현상을 인식할 때에 백방으로 머리를 쓴다. 특히 우리의 학습은 고도의 사고 활동이다. 우리의 학습 성과는 학습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며 얼마나 조리 있게 집중적으로 또한 창조적으로 사고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사물 현상을 인식하며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은 감각과 지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감각과 지각만으로는 복잡한 사물 현상의 본질과 그 호상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없으며 더우기 심오한 과학적 법칙들을 인식할 수 없다. 례를 들어 태양이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써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오직 옳게 그리고 꾸준히 사고함으로써만 모든 사물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과학적 지식을 성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레닌 선생은 일찌기 진리 인식의 방도에 대하여 《생생한 직관으로부터 추상적 사고에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실천에로…》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시였다.

인간의 사고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형식이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고 기능은 분석과 종합이다.

분석과 종합은 모든 사고 활동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사고 활동 그 자체가 바로 뇌수의 분석 종합적 활동인 것이다.

학습에서 오직 문제를 옳게 분석하고 종합하며 실천과 결부하여 창조적으로 사고함으로써만 쓸모 있고 정확하고 확고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학습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특히 현실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고 창조적 사고를 통하여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학습에서 분석이란 어떤 사물 현상과 교재들을 명백히 해명하기 위하여 몇 개의 구성 요소들로 갈라 내여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사물 현상을 분석할 때에 몇 개의 구성 부분 또는 몇 개의 속성과 측면들로 구분할 수 있다. 례를 들어 식물학이나 작물학, 원예학 등에서 임의의 식물을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하며 열매를 색갈, 형태, 크기, 용도 등 속성들로 분리하여 고찰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사고의 분석적 활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학이나 물리, 화학 문제풀이에서는 주어진 조건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만 이를 조리 있게 풀 수 있으며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력사에서 어떤 력사적 사건을 연구할 때에 그 시대적 환경, 력사적 사건의 원인과 발단, 그 경위와 전말, 사건의 주인공들의 투쟁, 사건의 결과, 그 력사적 의의 등으로 질서 정연하게 분석하여 고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 력사적 사건을 전반적으로 리해할 수 있으며 그를 력사 발전 전 행정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에서 분석만으로써는 문제의 전반적 파악과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사고의 종합적 활동이 필요하게 제기된다.

학습에서 사고의 종합적 활동이란 한 개의 사물과 현상의 몇 개 부분, 몇 개의 요소들을 하나의 전일체로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례를 들어 어떤 기대의 부분품들을 고찰한 다음 그것이 결합되여 조립된 기대의 구조와 작용을 파악하며 외국어 학습에서 개별적 단어를 안 다음에 그것을 호상 결합시켜 전체 문장을 파악한다.

사고의 종합적 활동은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실례를 들어 회상기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열도루허의 수림 속에서 적의 불의의 습격을 받아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가 정치 위원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리 명선 동지가 빈사의 부상과 혹심한 기갈을 극복하면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기여서 쌀도라즈허의 밀영까지 도달한 47 일 간의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투쟁 기록이다. 우리는 이 회상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고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 회상기 학습을 대치할 수 없다. 이 등장 인물들과 개별적 사건들, 설정된 세부분들을 다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이 회상기를 전일적 작품으로 인식할 때에 김 일성 동지께서 조직하고 령도하신 항일 빨찌산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라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종합적 활동은 건축과 기계의 설계도를 검토하거나 작성할 때, 복잡한 기술을 배울 때, 과학 론문을 연구 또는 작성할 때나 다 절실하게 제기된다.

분석과 종합은 호상 대립되는 사고 활동이면서도 호상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독서를 할 때 개별적 문장, 어'구, 단어, 문'자들이 부단히 분리되는 동시에 그것은 부단히 문'자, 단어, 문장, 단락으로 련결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 독서 내용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통일적으로, 전면적으로 료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습에서 사고의 분석과 종합적 활동은 호상 결합되며 호상 의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 기능이다. 그러므로 학습하는 내용을 더욱 정확하고 심오하고 공고하게 또한 쓸모 있게 습득하기 위하여 학습에서 분석 종합적 활동을 더욱 적극화하여야 하며 분석하고 종합하는 사고력을 기르기에 의도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학습에서 분석과 종합의 사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창조적 사고 즉 변증법적 사고의 배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

이다.

창조적 사고란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고이며 본질에서 변증법적 사고이다. 변증법적 사고는 항상 객관적 현실을 호상 련관 속에서 부단한 운동과 변화 발전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 가장 정확한 결론을 찾아 내는 사고 방법이다.

창조적이며 변증법적 사고를 배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적 계급적 립장에 확고히 서는 것이며 당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서, 당'적 계급적 립장에서 보고 분석할 때에야만 항상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깊이 연구 파악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고하고 학습하며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학습에서 온갖 부르죠아적 사고 방식을 극복하고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침습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당'적 계급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적 진리를 성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창조적 사고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둘째로, 학습 과정에서 항상 분석 종합에 기초한 다양한 사고 기능과 사고 형식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서 중요한 것은 대비법이다. 대비법이란 대비할 수 있는 사물과 현상들을 일정한 기준에서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내며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다. 대비법은 학습에서 과거와 현재, 낡은 것과 새것,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 등을 대비하여 그 본질을 명백하고 공고하게 인식하며 새것과 선진적인 것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론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례를 들어 오늘의 로동당 시대와 일제 시기,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을 대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확고히 인식할 수 있으며 론증할 수 있다. 대비법은 어느 부분의 학습에서나 다 광범히 적용할 수 있다. 대비 방법의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대비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분석하며 대비하는 것이다. 실례로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를 대비할 때에 일련의 기본적인 대비 기준들 즉 정치적 면, 경제적 면, 문화적 면, 인민들의 생활 수준 등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분석 비교할 때에야만 정확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옳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비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당'적 계급적 립장과 주체적 립장에 서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다음 귀납법과 연역법을 잘 적용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귀납법이란 학습에서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수법이며 연역법이란 반대로 일반적 명제로부터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수법이다. 학습에서는 이를 긴밀히 결합시켜 적용해야 한다.

례를 들어 변증법적 유물론의 학습에서 자연과 사회 발전의 구체적 사실의 분석을 통하여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을 인식한 다음에는 이 법칙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 발전의 구체적 사실과 사건들을 해명한다. 수학에서 많은 개별적 문제의 분석을 통해 공식을 도출하는 것과 이 공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도 그 실례에 해당한다.

세째로, 일상적 학습에서 자기의 분석과 종합의 사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교재들을 교조주의적으로, 무비판적으로 학습할 것이 아니라 항상 깊이 생각하며 전체에 기본을 두고 분석적으로 학습하는 태도가 습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교재를 학습할 때에도 우선 전체 문장을 읽은 다음 연구하면서 분석하고 그 후 분석한 것을 결합하여 다시 교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를 학습할 때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례하면 수정주의의 본질과 그 해독성을 해명함에 있어서 수정주의자들이 노리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맑스-레닌주의 명제를 수정하려고 하는가, 수정주의 발생의 사회 력사적 조건과 그 계급적 근원은 무엇인가, 현대 수정주의의 주요 특징과 그 위험성은 어디 있는가, 그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 과업은 무엇인가 등 조리 있게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때에 그 정체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철저히 폭로하고 그와의 투쟁 과업을 확신성 있게 인식할 수 있다.

분석 종합의 기능을 련마하며 사고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토론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토론은 교재를 공고하게 습득하는 중요 방도이며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전개하며 개괄하는가를 배우며 사고력을 련마하는 중요 수단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교재 내용의 충분한 파악에 기초하여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호상 토론하며 활발히 론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필기 작업은 교재 내용을 분석하며 본질적인 것을 갈라 내여 노트에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분석도, 사고도 없이 되는 대로 옮겨 베끼는 필기 방법을 근절하여야 한다.

더우기 작품을 쓰며 창의 고안과 발견, 발명을 위한 연구 사업, 과학 기술적 론문을 작성하는 작업은 고도의 창조적 사고가 요구되며 테마와 소재들의 심오한 분석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러한 창조적 과제의 해결을 통하여 학과 실력을 높이며 창조적 자립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학습에서의 사고 과정은 결코 순수한 사색 과정이 아니라 항상 실천과 결부된 창조적 사고로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는 항상 구체적 현실과 실천에 기초하여야 하며 실천에 의해 검증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습에서 배운 것을 생산 로동에 적용하며 창조적 로동 경험을 학습에서 철저히 해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생한 직관과 창조적 자립적 사고 그리고 실천과의 공고한 련결은 당면한 학습에서 성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분석과 종합의 사고력을 부단히 발전시키며 앞으로의 학습에 더욱 넓은 전망을 열어 준다.

《책을 쌓아 놓고 읽지 않는 것은 갈갈히 찢어 버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으며 글'줄을 되는 대로 설치고 넘어 가는 것은 빈둥거리며 노는 것과 다름이 없다.》

—리 덕 무—

※ 리 덕 무(1741~1793)는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발전을 위한 유익한 학문 탐구에 전념하였던 선진적 실학자이다.

로동과 생활이 준 노래

편집부는 아래에 가무 《꽃비단》과 《꽃피는 2 중 천리마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두 작품은 지난 번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축전에서 높이 평가된 작품으로서 우리들에게 생산을 잘 하는 곳에서는 예술 써클도 잘 되며 또 써클을 잘 하는 사람은 생산에서도 혁신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로동하는 청년들의 진실한 예술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축전 입선 작품

가무 《꽃비단》(박천 견직 공장 써클원 집체작)에 대하여—

동 봉 섭

보람찬 로동은 행복을 낳고 행복한 생활은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한없이 풍만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예술을 창조하게 한다.

우리는 흔히 창조적 로동으로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시대의 가수, 시대의 화가라고 부른다.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정열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폭을 이 땅 우에 수 놓으며 번영하는 천리마 시대의 위대한 합창에 자기 심장의 노래를 바치고 있다. 현실 속에서 창조된 생활의 예술은 전문 예술의 화원을 아름답게 수 놓고 있다.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축전의 전 과정은 근로 대중 속에서 찬란히 개화 발전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군중 예술의 진면모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로동자—써클원들은 끝 없이 행복한 생활에로 자기들을 이끌어 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충성심을 격조 높이 노래 불렀으며 새 생활 창조에 일떠 선 자기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정을 과시하였다.

허다히 우수한 축전 작품들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서 평북도 박천 견직 공장 써클원들이 출연하였던 가무 《꽃비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무 예술 형식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예술 전통을 기적과 혁신으로 충만된 우리 시대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인민 대중에 의하여 창조된 독특한 예술 형식이다.

이 형식 속에는 우리 인민의 음악적 재능과 무용 언어의 재능이 깃들어 있으며 무용과 음악을 하나의 예술적 형상으로 통일시킬 줄 아는 능숙한 솜씨가 빛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그 대로 노래와 춤인 시대에 사는 천리마 기수들은 이 예술 형식을 무척 즐겨하며 그것을 통하여 또한 자기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려 하는 것이다.

박천 견직 공장 써클원들도 바로 자기들의 환희와 감격에 찬 생활을 가무 《꽃비단》을 통하여 반영하려고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 옛날 금강산에 무지개 비끼면
팔선녀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나렸지만
오늘은요 아름다운 대령강 기슭에
비단 짜는 선녀들의 노래 소리 흥겨워요.
……
사랑하는 내 조국을 비단으로 덮는 마음
날개라도 돋친듯이 일하기도 신명 나요.

이것은 가무 《꽃비단》의 1 절 가사 내용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 구절인가! 이 속에는 우리 시대에 태여나서 만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필필이 비단을 짜는 처녀 직포공들의 드높은 영예와 긍지가 그 대로 고동치고 있다.

가사 내용도 좋지만 그 출연 형식이 또한 소박하고 황홀하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로 선녀들 부럽지 않게 곱게 단장한 열 두 명의 직포공들이 흡은 갈매기마냥 무대를 나르면서 춤추기도 하고 희열에 북바치는 감흥을 못'이기는듯 들썩들썩 놀리기도 하면서 이 밝고도 깨끗한 노래를 부를 때면 관중들도 그만 어깨가 들썩들썩 해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는 춤을 추고 춤을 추다가는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든 선률과 률동은 하나로 아름답게 어울려 관중들을 예술과도 같이 아름다운 그들의 생산 초소—견직기 돌아 가는 일터에로 이끌어 간다.

사실주의 예술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생활의 진실이며 사람들의 심오한 내면 세계의 반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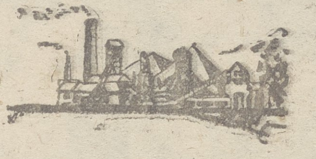
박천 견직 공장 써클원들의 가무 《꽃비단》이 우리 관중들에게 주는 예술적 매력도 바로 그들 자신의 생활과 고상한 정신 세계가 소박하고도 진실하게 반영되여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선률을 례로 들어 보자. 굿거리 장단으로 된 이 노래는 첫 부분에서는 류창하고 밝은 색채로 일관된 우아한 선률로써 완전히 자유로운 로동을 마음껏 즐기는 그들의 행복을 구가하는 것으로 되여 있다. 이러한 서정적인 울림은 중간 부분에서 약간 빨라지면서 마치도 직기가 돌아 가는 조화로운 률조와 같이 상쾌한 선률로 변한다. 그러다가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가사가 없이 《랄라랄라 랄라랄라》로 기적과 혁신의 보람찬 나날 속에서 무한한 희열을 느끼는 처녀 직포공들의 환희의 울림으로 된다. 그것은 더군다나 서도 민요의 아름다운 선률에 의하여 진한 민족적 향취를 풍기면서 얼마나 친근하고 따뜻하게 관중들의 가슴에 안겨 오는 것인가!

노래 부르면서 추는 그들의 춤 역시 매혹적이다. 비록 독자적인 무용 소품처럼 다양한 률동들이 도입되여 있지 않으나 그 속에는 자기들의 로동 과정에서의 가장 본질적이고 생동한 로동 률동들이 무용 언어로 선명하게 재현되고 있다.

절조 있게 움직이는 손 동작은 한 자라도 더 많은 비단을 짜서 나라에 바치기 위하여 일'손을 다그치던 그 솜씨 그 대로였고 그들의 걸음새는 8 자 형 순회로를 창안하여 다기대

철령기슭의 붉은꽃들



철령 아흔아홉 굽이굽이에는 봄마다 진달래가 붉게 핀다. 이 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 싸운 용사들의 붉은 마음을 가슴 깊이 생각하군 한다.

이 철령 기슭에 사시장철 스러짐 없이 피여 있는 붉은 꽃이 있으니 이 고장 사람들은 고산 영예 군인 문화용품 공장 동무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록음 짙은 8월 어느 날, 그들이 가무 병창 《꽃피는 2 중 천리마 부부》를 가지고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축전 무대에 올랐을 때 그 붉은 꽃송이들에서 풍기는 그윽한 향기와 그 약동하는 생의 힘은 철령 기슭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국 인민들이 가슴 뜨겁게 감수할 수 있었다.

모란봉 극장에서 수상 동지를 친히 모시고 자기들이 손수 창작한 작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출연하는 순간 그들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을 금할 수 없었다.

…무대 우에 꽃 같은 열 두 쌍의 부부가 나왔다.

영예 군인 열 두 동무가 무대 좌우 편에 앉아 능숙한 솜씨로 민족 악기를 탄다. 그들의 안해들인 열 두 명의 무용수들이 선녀처럼 무대 우를 선회하면서 억센 힘과 아름다운 색채와 격조 높은 선률을 보여 주고 있다.

음악은 고산 지방의 민요에서 취한 것으로서 강한 정서의 세계에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시대의 원앙새들인가! 그들의 가슴에서 울려 나오고 있는 노래는 또 얼마나 생동한 생활을 담고 있는가.

신고산이 우르릉 웬 소린가 하였더니
여든 한 쌍 천리마 부부 가야금 타는
소리라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몸도 불편한 그들이 저러도 훌륭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물을 것이다.

가야금을 타고 있는 리 경구 동무의 색안경 밑으로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그러도 기다려 오던 이 날에, 수상님 앞에서 생의 노래,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무대 우에서 그는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가?

지금 경구는 그의 전우들과 같이 경애하는 수령의 품'속에서 걸어 온 지난날을 생각하고 있다.

…1,211 고지에서 원쑤를 족치고 전승의 기쁨을 안고 돌아 오는 경구의 한 쪽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였다. 역시 미제 야수들을 굴복시키고 전승의 환희 속에서 돌아오고 있던 송 광섭 동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생각하였다. 자,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비록 몸은 불편하나 싸움은 멈출 수 없으니 무엇으로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혁명에 참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송 광섭 동무를 비롯한 17 명의 영예 군인들은 이리하여 힘을 모아 철령 밑에다 공장의 주추'돌을 세웠고 벽체를 쌓고 거기서 단추, 빈침, 완구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당과 수령의 어버이와 같은 손'길은 그들에게도 미치여 그들은 부닥친 곤난을 헤쳐 나가면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공장을 꾸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술도 부족했고 수족도 남처럼 자유롭지 못 했다.

운동을 세차게 전개하던 그 대로였다.

이 모든 세련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그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하에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는 자기들의 드높은 혁명적 기백과 생활의 랑만, 로동의 행복을 격조 높이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면 박천 견직 공장 써클원들의 가무 《꽃비단》이 금번 로동자 예술 써클 축전에서 거둔 특출한 성과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하는 사람들 자신이 자기의 생활을 아무런 허식과 과장도 없이 진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격조 높이 반영할 때만이 군중 예술로써의 자기의 높은 사상 예술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군중 예술의 예술적 생명력은 그의 집체 창작에 의하여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문학 예술 창작에서의 신비성을 반대하면서 광범한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 속에서 대담하게 창작하며 집체적으로 창작을 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박천 견직 공장 써클원들은 당의 이러한 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가무 《꽃비단》 창작에서 고도의 집체적 지혜를 발휘하였다. 그들은 이 작품을 창작하기 전에 《비단필을 짜서》라는 가무를 가지고 공장 구락부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일부 로동자들 속에서는 《언젠가 도에서 가무단이 왔을 때 저 비슷한 춤을 추었지…》 하는 말들이 울려 왔다. 이 말은 써클원들을 깊이 생각케 했다. 그리하여 써클원들은 이 번만은 우선 자기 공장 동무들의 마음에 꼭 들게 가무를 만들자고 단단히 결심했다.

가사의 초고가 떨어지고 뒤'이어 작곡도 되였다. 그것은 즉시로 써클원들의 합평에 붙였다. 써클원들 속에서 훌륭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량 연숙, 주 미자, 김 춘백 동무들은 꽃비단의 우월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비단을 짜는 처녀들을 선녀와 대비시키자는 의견, 혁신의 면모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가사에 8 자형 순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무용 률동도 8 자형 률동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지체 없이 작품에 반영되였다.

써클원들은 물론 이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참다운 예술의 평가자는 인민 대중인 것이다. 때문에 써클원들은 교대 시간이나 휴식의 짤막한 시간을 리용하여 작업반 동무들 앞에서 자기들이 창조한 가무를 출연하고는 그들과 광범히 토론하였다.

과연 대중은 예술의 정확한 평가자였을 뿐만 아니라 창조자였다. 어느 한 작업반에서의 합평회 때 한 동무는 과거 자기 고장 부모들이 다섯 새 무명옷도 입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한 사실과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해방 전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던 조 성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상을 작품에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가무에는 다음과 같은 감명 깊은 시 구절이 새겨졌다.

흘러 간 지난 세월 우리네 부모님
다섯 새 무명옷도 재것을 못 입었으니
장생불로하시라고 훨훨 나는 백학 무늬
양단, 공단, 모본단에 곱게곱게 수 놓아요

이것이 바로 로동하는 사람들 자신이 집체적 지혜와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여 높은 사상 예술성을 보장한 가무 《꽃비단》의 창조 과정인 것이다.

또한 가무 《꽃비단》은 생산을 잘 하는 사람들만이 훌륭한 예술도 창조할 수 있으며 써클이 잘 되는 곳에는 생산도 잘 된다는 것을 실지 생활을 통하여 확증하였다. 사실 박천 견직 공장 써클원들은 생산에서도 모두 혁신자들이였다. 그들 중 대부분의 동무들이 벌써 지난 8월까지 금년도 년간 계획을 초과 완수하였다.

위대한 기적과 혁신으로 충만된 생활은 역시 위대한 예술을 낳는 것이다.

표화 속에서는 무서운 힘으로 원쑤놈들을 죽친 그들이였으나 이제 그들의 생활의 길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일부 동무들은 신심을 잃기도 하였다.

(이럴 때 동무들을 불러 일으켜야지!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좋아할 건 원쑤놈들이 아닌가?)

어느 날 밤 경구는 이런 것을 문득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의 눈엔 벽에 걸린 만도링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만도링을 벽에서 내려서 무릎 우에 놓고 줄을 튕겨 보았다. 순간 가슴에서 뜨거운 그 무엇이 꿈틀거렸다.

1,211 고지 갱도 안이 눈앞에 떠올랐다.

(이 화선 악기는 그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안겨 주었던 것인가?)

이튿날부터 작업장에는 가야금, 양금, 퉁소가 나타났고 작업이 끝나면 기악 연주와 합창 소리로 흥성거렸다.

공장은 밤을 몰랐다. 사람들마다 흥에 겨워 지혜를 모았고 힘을 합쳐 일'손을 다그쳤다. 안해들도 남편을 도와 환희에 찬 일터로 나왔다.

영예 군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공장을 며늘쿠고 탁아소, 유치원, 구락부를 지었다.

사람마다가 생산에서도, 학습에서도, 생활에서도 천리마를 탔다. 그라하여 공장의 다섯 개 작업반이 모두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고 또 3 개 작업반은 2 중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쟁취하였다.

행복을 찾은 이들에게서는 자랑스런 노래 소리가 쉼 없이 울려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날도 여니날과 같이 구락부로 영예 군인 부부들이 모여 왔다.

즐거운 오락회가 막 끝난 뒤였다. 송 광섭 지배인이 그의 안해와 딸의 손목을 잡고 무대 우에 올랐다. 인민 학교에 다니는 그의 딸이 풍금을 타고 송 광섭 동무는 노래 부르고 그의 안해는 춤을 추었다.

이 공장의 가족 써클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늘 누워서 구락부에는 올 생각도 않던 김 병구 동무도 그의 안해 구 창렬 동무에게서 가야금을 배워 무대에 오르게 되였다. 그가 가야금을 뜯고 그의 안해가 노래를 부르니 그를 근심하던 작업반 동무들에겐 또 하나의 기쁨이 생기게 되였다.

가족 써클은 직장 써클로 발전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 공장 일'군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써클원이 되였고 공장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였다.

《우리가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며 노래 부르며 춤 추는 것을 수상님께 한 번 보여 드렸으면…》

이것은 그들의 일치한 념원이였다.

사과나무 감나무 향기로운 일터에
부부 쌍쌍 춤을 추니 원앙새도
날아 드네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고 꽃을 피워 온 그들은 마침내 자기들의 생동한 생활의 음향과 화폭을 담은 가무를 수상 동지 앞에서 공연하게 되였다…

이윽고 공연은 끝났다. 그런데 그들이 화장실에서 아직 공연의 흥분을 식히기도 전이였다. 그들은 수상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높뛰는 심장을 안고 그 이가 계시는 휴계실로 달려 갔다. 써클원들이 휴계실에 들어 서자 만족한 웃음을 띠우신 수상 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시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였다. 이 행복, 이 기쁨, 이 영광을 무엇에 비기랴!

수상 동지는 써클원 박 광빈 동무의 가슴에 영예 군인 휘장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시더니 동무들은 어제'날도 잘 싸웠지만 오늘도 잘 싸우고 있다고 치하해 주시면서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였다. 그리고 수상 동지께서는 그들이 지금 생산에서도 모범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앞으로 생산도, 써클도 더 잘 하여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고 간곡하게 타일러 주시였다.

수상 동지는 친어버이 마음으로 오래오래 써클원들을 고무하여 주시였다.

이 날 밤 이들은 고산에 있는 전우들에게 수상 동지를 뵈운 감격과 흥분을 전보에 담아 보냈다.

본사 기자 한 현준

평 론



저주로운 사회, 피 맺힌 원쑤를 잊지 말자!

— 중편 소설《한 녀성의 운명》에 대하여 —

김 헌순

우리는 오늘 로동당 시대의 은혜로운 해'빛 아래 행복하고 부러움 없는 생활을 누리고 있다.

힘껏 일할 수 있고 희망껏 배울 수 있으며 재능껏 나라와 인민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이 우리 앞에 훤히 펼쳐져 있다. 착취와 억압이 영원히 물러 간 사회, 문명하고 유족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행복과 자유가 귀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부모들이 겪어 온 그 몸서리 치는 불행과 고통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는 민족의 원쑤, 계급의 원쑤와 엄연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며, 원쑤들은 사람들을 그처럼 짓밟고 헐벗게 하는 악착한 제도를 되살려 볼가 하고 혈안이 되여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원쑤를 똑똑히 알아야 하며 그들이 저지른 천추에 잊지 못할 가지가지 죄악을 낱낱이 머리에 새겨 두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때만이 오늘의 은혜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의 참된 삶을, 우리의 피땀으로 이룩한 사회주의 제도를 원쑤들의 검은 마수로부터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미루어 볼 때 얼마 전에 민청 출판사에서 발간한 리 기영 작 중편 소설《한 녀성의 운명》은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재삼스럽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소설에는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여난 주인공 필례의 눈물겨운 반생이 펼쳐져 있다.

그의 운명은 기구하고 불행하였었다. 첩첩히 앞을 가로막던 불행의 파란 곡절, 세상의 가난과 학대, 모욕과 천대가 죄다 차례진듯한 악착한 가시덤불'길, 그것은 사람이 누릴 생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몸서리치는 생지옥이였다.

콩 두 섬 빚에 집을 차압 당하고는 설풍 휘몰아 치던 섣달 그믐날 온 식구가 떼거지로 되여 정처 없는 류랑의 길을 떠나던 일, 아직도 어리광으로 지낼 아홉 살의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눈치밥과 천대에 눈물 짓던 일, 거지로, 녀직공으로, 품팔이'군으로, 식모살이로 류랑 걸식하던 나날, 삶의 보람이란 한 순간일 뿐, 뼈저린 가난에 쪼달리고 기막힌 수난과 불행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였던 신혼 생활과 재혼 생활…이 과정에 죽음의 고비인들 그 얼마나 있었던가!

무엇 때문에 주인공 필례는 그처럼 험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지 않으면 안 되였으며 그

누가 그에게 그 처럼 불행하고 고난스러운 운명을 강요하였던가?

주인공의 운명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동정과 사건의 발전은 이 물음에 명료한 대답을 안겨 준다.

그것은 필례가 타고난 《팔자》의 탓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고지식》 때문도 아니였다. 죄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며 돈 있는 자들의 탐욕과 허위와 요사를 용납하고 옹호하는 그 모순된 사회 제도에 있었으며 그러한 질서와 제도를 마련하고 틀어 쥐고 있던 착취 계급—인민의 원쑤들에게 있었다.

불행의 말단—집을 잃고 떼거지의 신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되였던 그 기막힌 사연이 과연 무엇에서 빚어졌던가?

고향 마을 룡촌의 지주요 고리 대금업자인 리 태벽은 오직 땅을 차지한 까닭으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었고 돈을 쥔 까닭으로 권력을 등에 업고 마을 농민들의 운명을 마구 좌지우지하였었다. 사람의 도리와는 담을 쌓은지 오래고 오직 탐욕에만 혈안이 된 그는 고리대와 맞장리의 미끼를 던져 자기 재산을 뿔쿨 차비에만 골돌하였다. 이 사람 아닌 《승냥이》가 던지는 미끼—콩 두 섬의 맞장리—에 필례네 식구들이 걸려 들었던 것이다.

돈 있는 자들에게 일찌기 인정과 인도를 바랄수 있었던가?! 미끼를 물기가 바쁘게 필례네 생활은 거덜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대목을 읽어 내려 가는 우리 가슴에는 사람의 고혈로 살져 가는 착취자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이 용솟음친다.

일제 통치의 암운이 드리웠던 시절에 우리 인민은 2중 3중의 억압 착취에 시달려 왔다. 주인공 필례가 겪은 녀직공 생활로부터 신혼 생활, 재혼 생활에 이르는 험난한 길은 이것을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영등포 방직 공장은 녀직공의 피를 빨아 먹는 마굴이였을 뿐만 아니라 갖은 민족적 모욕과 인간적 권리를 짓밟는 하나의 감옥이기도 하였다.

15~16 시간의 고역을 당하는 것만도 억울하기 짝이 없었는데 감독을 앞장 세워 반반한 녀직공들을 수욕의 노리개'감으로 삼으려는 일본인 공장장놈의 등'살을 그 대로 참아 내기는 더우기나 힘겨웠다.

비록 가난에 쪼들려 공장으로 흘러 들어 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야수적 착취와 터 없는 인간적 모욕을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피여나는 청춘을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썩이기는 그들의 삶에 대한 꿈이, 왜놈들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도 컸다.

그리하여 탈출이 계획되였다. 나어린 경순이를 놈들의 마수로부터 구원할 양으로 광목 창고를 털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이 탈로 나고 붙잡힌 필례는 일본 경관들의 혹독한 고문을 받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15일 간의 밤낮 없는 고문에 늑살이 난 것은 필례가 아니라 바로 경관들 자신이였다. 그 만큼 필례의 입에서는 한 마디의 굴복도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무서운 죽음의 고비를 필례는 감쪽같은 계책으로 넘어 선다.

《그렇다! 살아야 한다. 끝까지 살아서 이 원쑤를 갚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지 않는가! 오직 살아야겠다는 희망과 욕구가 필례의 심장을 굳게 틀어 잡았다. 살아서 이 원쑤를 갚자고 그는 왜놈들에 대한 마음의 복수장에다 또 한 가지를 기록하였다.》

불행에만 시달려 온 필례에게 한 가닥의 기쁨과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었던 신혼 생활도 그러했지만, 생활의 흐름을 따라 하는 수 없이 김 완욱과 재혼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그 이후 시기의 생활 역시 왜놈의 등'살을 이모저모로 받지 않으면 아니 되였다. 그나마 땅 우에는 두 다리를 펼 곳이 없어 늘쌍 배 우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였고 그 배 우에서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까지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였던 설음을 과연 누가 가져다 주었던가? 벼락 풍파에 배가 뒤집혀 겨우 목숨을 건졌는 데도 동정은커녕 까닭 모를 손해 배상으로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잘라 가는 제철소의 왜놈 감독놈들이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을 흡혈귀요, 인간의 껍질을 뒤집어 쓴 야수들이 아니였던가? 홍어를 잡을 미끼로 일본인 선주놈이 조선 소년의 살'점을 서슴없이 떼여 내였다는 송 병선의 이야기가 뼈에 사무쳐 온다.

그러기에 70 고령을 넘은 필례의 할아버지가 일곱 아이들을 버려 둔 채 집을 떠나려는 며느리(필례의 어머니)를 붙들고 아래와 같이 말하였을 때 그것은 그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며 진실이기도 하였다.

《하기야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우리 집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게다! 내 나이 70이다만 옛날에는 아무리 고리대라도 장리 밖에 없었는데 왜놈의 세상이 되면서부터 인심이 날로 야박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못 살 지경이 되였단다… 가난한 백성들이 못 살게 된 근본 원인을 캐여 본다면 왜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긴 때문이요, 부자놈들만 잘 살게 된 이 세상이 나쁘기 때문이다.》

왜놈, 지주놈들—돈 있고 권력을 쥔 놈들이 그처럼 몰렴치하고 악착한 불아귀요, 야수들이라면 제 힘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인민들은 그 얼마나 슬기롭고 거룩한가! 이 크나큰 사상을 작가는 가슴 흐뭇이 안겨 준다.

주인공 필례만 하더라도 비록 가난과 모욕에 시달려 왔을 망정 그 얼마나 떳떳하고 주'대 있는 영상인가!

그는 어릴 때부터 학교 문턱이라고는 넘어 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생활의 흐름은 그에게 더 없이 귀중한 신념을 가져다 주었다. 세파가 제 아무리 험하더라도, 원쑤들이 뜯고 할고 박지르더라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으며 래일을 믿고 꿋꿋이 버티여 나갔다. 그는 물론 시대의 진리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투사로까지는 자라 나지 못했으며 한갖 생활 속에서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낡은 사회의 모순을 깨달았으며 피 맺힌 원쑤를 알게 된 데 불과하였다. 그렇다치더라도 혼탁한 세상의 그 모든 사악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을 깨끗한 심정과 아름다운 마음씨, 거짓 없는 근면과 원쑤들이 꺼꾸러지고야 말 래일을 갈망하고 확신하는 그의 정열은 못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 준다.

첫 남편인 김 춘식이 사 들고 온 갈치를 안주 삼아 소박한 술'상을 마련하고 삶의 보람을 난생 처음으로 느껴 보던 장면과 기구한 인연인듯 둘째 남편 김 완욱에게도 엇비슷한 차림새의 술'상을 대접하게 된 장면, 생명의 은인들인 주막집의 늙은 《부모》들과 정필 어머니네 식구들을 잊지 못 해 애타하는 그 갸륵한 심정에는 인민들의 등을 쳐 먹기에 이골이 난 《승냥이》 떼들의 세상에서는 찾을 길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 점으로 볼 때 구지레한 선창가에서 주인공 필례가 동생 금순과 나누는 이야기들은 몹시도 감명 깊다.

집안이 가난에 쪼달리고 풍비박산 헤여지게 된 것이 바로 식구가 많기 때문이며 어두운 세상의 흐름 따라 엄벙덤벙 살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금순을 타이르면서 필례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세상이 나쁜 데 사람은 따라 가야 하는가? 나쁜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옳은 길을 밟아 나가야 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너와 같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이 뒤죽이 되겠으니 그것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짐승의 세상이 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뭉친 힘으로 이 세상을—이 나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옳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옳은 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결코 네가 말하듯이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옳은 행동을 본받고 그 대로 해야 할 거다…》

그렇다! 과연 세상은 그러하였다! 악착한 놈들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는 남의

불행을 몸 바쳐 도울 줄 알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일처럼 기뻐할 줄 아는 선량하고 인자하며 근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았던가!

필례의 부모도 그러하였지만 주막집의 늙은 부부나 정필네 식구들과 금순이의 집안 사람들, 필례의 남편들인 김 춘식, 김 완옥, 그리고 송 병선과 뭇배'군의 형상은 바로 그것을 말해 준다.

세상은 바로 이 지혜롭고 인자하며 헤아릴 수 없는 큰 힘을 지닌 이들에 떠받들려 뒤바뀌고 말았던 것이다.

8.15 해방은 필례와 같이 압박 받고 천대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삶의 참된 광명을 비쳐 주었다.

작품의 맨 마감 장에서 왜놈들이 쫓겨 간 다음 공장에서 사랑을 받고 세 아이를 거느리고 보람 있게 살아 가는 주인공 필례를 대하면서 우리는 형언키 어려운 기쁨과 함께 시대는, 세상은 결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민족의 원쑤, 계급의 원쑤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물러 가며, 또 물러 가고야 말리라는 신념을 굳게 다지게 된다.

《한 녀성의 운명》은 중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오체르크(실화)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마감에 쓴 작가의 후기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으려니와 등장 인물의 이름에서까지도 거의나 실지의 원형을 그 대로 살리려는 작가의 창조적 시도를 엿보기 때문이다.

작가 리 기영의 작품 일반이 그러하지만 이 중편 소설의 경우에도 일관된 사상적 경향성이 명백하고, 독자들의 가슴에 지피려는 창조적 기백이 뜨거우며 진실하다. 주인공의 운명을 눈물겨웁게 동정하며 그를 구박하는 낡은 사회를 저주하고 규탄하는 작가의 얼굴과 입김이 그 대로 글'발에서 풍겨지고 있지 않는가!

구성과 사건 조직이 순탄하고 째여져 있으며 매 대목마다의 묘사에서도 역시 리 기영 고유의 민족적 체취를 느끼게 되는 것도 독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준다. 이러한 예술적 특성들이 이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를 한층 더 두드러지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보다도 더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작가가 우리 당의 뜻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어 젊은 세대들을 계급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제때에 소중한 《교과서》를 제공해 준 점일 것이다. 작가 리 기영은 우리들이 원쑤들을 똑똑히 알고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기억하는 의의 깊은 일을 때에 알맞게 도와 준 셈이다.

중편 소설 《한 녀성의 운명》을 곱씹어 읽자! 그리고 저주로운 원쑤들이 활개치던 지난날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오늘을 굳건히 지켜 나가도록 분발하자!

청년생활 소사전

심장은 어떻게 일생 동안 끊임 없이 일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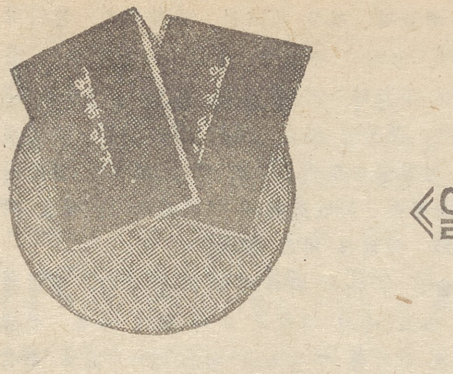
심장은 사람이 나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 없는 활동을 계속한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고동치며 1 년에는 약 4천만 번 고동친다.

심장은 1 분 동안에 6 리터의 피를 밀쳐 내보내며 하루에는 9천 리터, 1년에는 3백만 리터의 피를 내보낸다.

어떻게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 이렇게 끊임 없이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는가?

심장은 한 번 박동하는데 대략 0.8 초 걸리는데 심실이 한 번 수축하는 시간은 약 0.35 초이고 나머지 0.45 초 동안은 심실의 근육이 휴식한다. 이러한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심장 박동의 률동—이것이 바로 심장이 일생 동안 끊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본이다.



명작 감상

《열하 일기》에 대하여

최 언경

《열하 일기》는 연암 박 지원 선생의 작품이다.

박 연암 (1737~1805) 선생은 18 세기 우리 나라가 낳은 가장 탁월한 사실주의 작가였으며 위대한 실학 사상가였다. 선생은 비록 자신이 량반의 가문에 태여났으나 일하지 않고 인민의 고혈을 짜내여 부유한 생활을 하는 량반 통치자들을 황충이처럼 증오하고 멸시하였다. 다른 한편 선생은 땀 흘려 일하는 자난한 농민들을 열렬히 동정하였으며 일생 동안 그들의 해방과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또한 선생은 사람이 일생을 두고 하루도 그치지 못할 일은 글을 읽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글'공부를 할 때에 선생은 늘상 자기 집 하인이나 가난한 나무 장사, 외 장사, 장'군 등 일반 인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들과 친히 사귀였다. 선생은 재능 있는 작가로서 인민성이 풍부한 소설들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시도 썼고 수필이나 정론도 썼다. 이 여러 가지 글들에는 정치, 경제, 철학, 력사, 문학, 예술 및 자연 과학에 대한 선생의 해박한 지식과 진보적인 유물론 사상이 반영되여 있다.

《열하 일기》는 1780년에 조국을 떠나 중국의 북경을 거쳐 남쪽 열하 지방까지 무려 2천 3십 리나 되는 긴 려정을 4 개월 간 려행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예술적으로 묘사 서술한 26 권의 대작이다.

《열하 일기》에서 선생은 18 세기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인정 세태 등 인민 생활의 전 면모를 사실주의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열하 일기》 전편을 통하여 관통하고 있는 작가의 열렬한 사상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다. 작가는 누구보다도 량반 사대부들의 사대주의 사상을 반대하였으며 언제나 민족적인 자주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과 인민을 자랑하였다. 또한 선생은 《열하 일기》에서 천원 지방설 (天圓地方說)을 반대하고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으며 태양의 반사에 의한 지광설 (地光說)을 주장하는 등 유물론 사상을 서술하였다.

일체의 세상 만물은 먼지와 같은 물질의 최소 립자로 구성되여 있으며 그것은 부단히 운동 변화 발전한다고 선생은 강조하였다.

《열하 일기》는 그 구성상 특성으로 보아 총체적으로는 장편 기행 오체르크라고 할 수 있으나 매개의 장은 또한 독립적인 하나하나의 예술 작품들을 이루고 있어 여기에는 수필, 정론, 소설, 평론 등의 여러 가지 쟌르들이 포함되여 있다. 이 모든 작품들은 철저히 사실주의적인 미학관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선생은 배를 타고 가던 도중 어떤 서람이

《강산이 그림 같구나!》 하고 감탄하는 것을 보고 《자네들은 강산도 모르고 그림도 모르는 말일세. 강산이 그림에서 나왔겠나, 그림이 강산에서 나왔겠나?》라고 질책하였던 것이다.

《열하 일기》에 묶어져 있는 수 많은 작품들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은 두 편의 주옥 같은 단편 소설인 《범의 꾸중》과 《허생전》이다.

이 소설들은 당대의 통치 계급들을 무자비하게 폭로하는 비판 정신에 있어서나 나아가서는 새로운 미래의 리상을 제시한 그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단편 소설로서의 그 구성 상 정제성에 있어서도 제 1 기 작품들의 예술성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소설 《범의 꾸중》은 《열하 일기》의 제 4 권 《관내정사》에 수록되여 있다. 작가는 이것이 자기의 작품이 아니고 벽 우에 써 놓은 어떤 중국 사람의 글을 옮겨 베끼고 그 글 가운데 있는 두 자를 따서 《호질》이라고 했다고 하나 이는 선생이 당시 봉건 통치배들이 통치하는 외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러 꾸며서 한 이야기이다.

중국 사람의 글이라면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명작이 그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리도 없거니와 우선 그 문체와 수법 상 특징으로 보아도 《량반전》이나 기타 선생의 글들과 근사하다.

《범의 꾸중》은 극도로 예리화된 형상을 통하여 량반 사대부들의 무능성과 위선성, 권력에 대한 아첨 등을 더 말할 여지 없이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다.

소설은 천자와 제후들까지 그 높은 학벌을 사모하는 선비 북곽 선생과 절개 높은 아름다운 과부인 동리자와의 밀회 장면을 폭로 한다. 동리자의 각성받이 다섯 아들에게 발각된 북곽 선생은 정신 없이 쫓겨 나오다가 거름통에 빠진다. 있는 힘을 다하여 겨우 기여 나온 북곽 선생 앞에는 범이 막아 선다. 북곽 선생은 제발 살려 달라고 갖은 아첨을 다한다. 작가는 이러한 장면의 묘사를 통하여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량반 사대부의 위선과 부패한 리면 생활을 폭로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다 산 량반 계급의 정신 세계의 허약성을 들어내 놓았다. 그러나 작가는 량반 통치 계급의 반동성을 폭로하는데 머물지 않았다. 《량반전》에서는 부자의 입을 빌어 량반이란 도적이라고 락인함으로써 봉건 지배 계급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확인했다면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 본다.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혀 범에게 절을 하고 나서 머리를 들어 보니 북곽 선생 앞에는 자기를 꾸중하던 범은 간데 없고 새벽 일찌기 들에 나온 농부가 인사를 했다.

이렇게 되자 북곽 선생은 오히려 허풍을 떨면서 허장 성세하여 호통을 친다. 《내 들으매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맘 대로 못 들고 땅이 두텁다 해도 발을 맘 대로 못 디딘다고 했거든!》 작가는 이처럼 몰렴치하고 2 중적인 북곽 성생의 행동을 통하여 이러한 량반 사대부는 더는 영원히 구원될 수 없는 위선자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작가는 물론 그 당시 봉건 통치배들의 감시를 고려하면서 무대를 중국으로 하였고 의인화의 수법으로 범을 등장 인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북곽 선생을 론죄하는 범의 말 속에는 억압 당하고 착취 받는 당시 우리 인민들의 분노에 찬 항의가 울리고 있으며 범은 곧 농부의 분신임을 보이고 있다.

새벽부터 들에 나온 농민을 통해서 작가는 조국의 어둠과 영원히 결별하고 광명한 미래를 힘 차게 맞이하려는 열렬한 조국애와 벅찬 랑만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연암 선생 자신이 글 뒤에 붙인 결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글에는 본래 제목이 없었는데 이제 글 가운데 있는 <호질> 두 자를 따서 제목을 삼아 중국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바이다》라고 선생은 썼다.

이것은 곧 조국의 맑은 아침을 손꼽아 기다리는 선생의 뜨거운 마음이니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조국의 맑은 아침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범의 꾸중》을 지나 《허생전》에서 기다려야 한다.

참으로 소설 《허생전》은 《범의 꾸중》이 뚜렷하게 다 보여 주지 못한 미래의 사상을 확고한 투쟁의 리상으로 그린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허생전》은 당대 무너져 가는 봉건 사회에서 조국의 참된 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정한 해답을 주려고 한 작품이다.

연암 선생은 조국이 빈궁과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농민 대중이 봉건의 속박에서 해방되여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대답하였다.

소설의 주인공인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는 선비였다. 그러나 허생은 사회의 불합리성을 느끼면서도 싸울 줄 모르는 《량반전》의 량반과는 달리 새 사회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적극 투쟁하는 투사의 형상이다.

10 년 공부를 결심했던 허생은 생활의 빈궁으로 7 년만에 글'공부를 버리고 장사'길에 나선다. 그러나 그것은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리상을 시험해 보기 위한 원대한 목적에서였다. 집을 나선 허생은 서울 변 부자에게 가서 돈 만량을 꾸어 과실 장사, 말총 장사를 하여 일거에 백만 부자가 된다.

큰 돈을 번 허생은 변산 반도의 농민 봉기군 2,000 명을 데리고 무인도로 들어 가 리상 사회를 건설한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작가의 선진 사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이 리상 사회는 계급이 근절된 사회이며 밭갈이를 하루라도 먼저 하면 먼저 먹게 하고 다 같이 일하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이며 례의와 도덕이 높은 나라이다. 평등한 로동에 기초한 이 나라에서는 옥수수 한 꼬갱이에 아홉 이삭씩이나 패서 풍요하고 행복한 락원과 같다.

물론 작가의 이 리상은 그것을 실현할만한 물질적 조건을 현실적으로 가지지 못 했기 때문에 공상적 성격을 면치 못 했다. 그러나 왕을 혁명적으로 정복한 홍길동 자신이 후에는 다시 선량한 왕이 되는 《홍 길동전》의 계몽주의적인 리상과 비교할 때 《허생전》의 리상 국가는 훨씬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어떤 보다 《좋은》 통치자도 용납하지 않으며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모든 인민들이 다 같이 자유롭게 로동하고 호상 존경하며 질서를 유지해 나갈 뿐이다.

바로 이와 같은 고상한 리상 속에 박 연암의 위대한 사상이 반영되여 있다.

무인도에서 리상 국가를 건설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 온 허생은 장사를 그만 두고 다시 선비로 된다

그는 돈 만량 대신 10만량을 변부자에게 갚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작품 종말에 가서 리완 대장과 만난 허생은 소위 한다 하는 《나라의 신의 있는 신하》로서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선적이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리완 대장을 폭로한다.

여기서 작품의 반봉건적인 주제의 의의와 사상적 내용은 더욱 명백해진다.

이리하여 《허생전》은 18 세기 조선 사회가 제기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정한 해답을 주었다.

이와 같이 《열하 일기》는 박 연암 선생의 문학 유산 중 그 량적 비중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사상 예술적 가치에 있어서도 가장 우수한 세계적 명작의 하나로 된다.

《열하 일기》는 여기에 반영된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과 고상한 인도주의, 새것을 배우려는 진보적 사상 등으로 하여 오늘도 청년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기가 잘 한다는 마음만 버리면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마음을 버리면 마음이 자연히 편하고 사치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담박하여지고 조급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태평하여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면 마음이 화평하나니라.

—리 턱 무—

애국 청년 리 재명

리 남선



리 재명은 1889년에 평안도의 한 가난한 빈농가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불행히도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고 외지할 곳 없는 고아로 되여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 다니면서 문전 걸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몇 해를 류랑 고아로 떠돌아 다니다가 평양 미림리에 사는 한 지주 집에 들어 가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고용살이를 하게 되였다.

리 재명의 고난에 찬 어린 시절은 그에게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동요할 줄 모르고 원쑤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는 강직한 품성을 키워 주었다.

그는 의협심이 매우 강하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척 동정하였다.

더우기 봉건 통치배들과 지주들로부터 참을 수 없는 억압과 천대를 받아 온 그는 계급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누구보다도 강하였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겠다는 결의가 비상히 높았다.

리 재명이 나서 자란 시기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리 완용을 비롯한 매국 역적들과 친일 주구 단체인 《일진회》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1905년에 이른바 《보호 조약》을 강요하면서 조선 강점을 본격적으로 촉진시키던 때였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목격한 리 재명은 침략자들과 매국 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참을 수 없었으며 그들을 처단하고 망국의 비운에서 나라를 구원하려는 큰 뜻을 품게 되였다.

그는 우선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애국 청년 홍 학진, 김 봉주 등과 손을 잡고 6~7 명의 동지들로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제 1 차적으로 조선 인민의 매국 역적인 리 완용을 두목으로 한 《을사 5적》을 처단하기로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 갔다.

1909년 12월 리 완용이 서울 남산 천주교당에서 열린 《백이의 왕의 추도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은 리 재명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였다. 리 재명은 매국 역적 리 완용이 남산 천주교당에 갔다 돌아 오는 길에서 그를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날 밤 복수의 순간을 기다리던 그들은 때마침 리 완용이 일본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인력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리 재명의 애국의 피는 끓어올랐다. 그들은 비호 같이 리 완용을 습격하였다.

마침내 리 완용은 땅에 나딩굴었다. 이 순간 리 재명은 매국 역적 리 완용에게 복수의 칼을 질러 그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다.

그러나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였다.

일제놈들은 그에게 갖은 악형과 고문을 가했다. 그러나 리 재명은 자기의 애국적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며 끝까지 일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다 원쑤들에 의하여 사형 당하였다.

그 때 그는 스물 한 살의 꽃다운 청년이였다.

리 재명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충성과 애국주의 사상으로 빛났다.

리 재명은 자기의 애국적 활동으로써 원쑤들에게 조선 청년이야말로 자기 목숨보다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조국을 위하여서는 자기 목숨도 서슴 없이 바쳐 싸우는 고결한 애국주의 정신을 가진 청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 ☆ —

불굴의 녀성 청년 강 주룡



김 명기

1920 년대 말부터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일제 야수들의 민족적 멸시와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였다.

평양 시내 고무 공장 로동자들도 자본가들의 학대와 자기들의 로임을 감하려는 기업주놈들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여 궐기하였다.

1931년 5월에는 평원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임금 인하를 반대하는 파업이 전개되였다. 이 파업에서 로동자들은 일제 경찰의 간섭과 검거, 공장주의 새 직공 모집 등 반동들의 공세가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이들은 공장주를 반대하여 공장 점령, 새 직공의 파업단으로의 인입 공작, 단식 투쟁 등 각종의 방법을 다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으며 평양 시내 로동 조합들에서는 동정금을 보내면서 파업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제놈들은 로동자들을 탄압하려고 무력을 동원하고 조 만식과 같은 개량주의적인 민족 반역자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그들의 투쟁을 무마하려 했지만 자기 충천한 로동자들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들 로동자들 중에는 강 주룡이라는 한 녀성 청년이 있었다.

그는 원래 빈한한 농민의 딸로서 태여났으나 농촌에서 살 수가 없어 살'길을 찾아 평양으로 나왔다. 그는 공장에 들어 가 로동을 하면서 가난한 부모들을 다소나마 도울가 하여 이 곳 저 곳 헤매다가 마침내 평원 고무 공장에서 일하게 되였다.

그는 남달리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나 몇 년 세월이 흘러도 고향에 계신 부모들을 돕기는 커녕 제 밥벌이조차 되지 않았다. 왜놈들은

그 때 녀성 로동자들에 대해서는 몇 푼 안 되는 기아 임금마저 남성 로동자들의 절반 밖에는 주지 않았던 것이다.

강 주룡은 차츰 자기와 같은 가없은 처지에 놓여 있는 녀성 로동자들이 어찌하여 못 살게 되는가를 실제 생활을 통하여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하기에 그는 파업 투쟁이 전개되자 항상 로동자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총 파업에로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투쟁을 지도하였다.

그는 파업 군중들에게 웨쳤다.

《여러 분!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놈은 일본 침략자와 자본가놈들입니다. 그 놈들을 모조리 없애 버려야 우리 로동자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파업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는 친일 주구배들의 반역적 행위를 견결하게 폭로하였고 원쑤들에게 체포된 파업 지도자들과 로동자를 석방할 것을 단호히 요구하여 시위를 조직 지도하였다.

이와 같은 로동자들의 시위에 당황한 일제는 파업을 탄압하기에 혈안이 되였다. 그러나 강 주룡이 선두에 선 녀성 로동자들은 놈들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항거해 나섰다.

어느 날 그들은 모란봉 을밀대 주위에 집결하였다. 강 주룡은 을밀대 지붕에 올랐다. 여기에서 그는 검은 치마'자락을 바람'결에 나붓기면서 무려 9 시간 반 이상이나 군중을 향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의 죄악을 폭로하여 열정적으로 연설하였다. 그는 전체 로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으며 원쑤들의 그 어떠한 술책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고 높이 웨쳤다.

이 때 일제 군경놈들은 거듭 그에게 지붕에서 내릴 것을 강박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강박으로도 불굴의 녀성 청년 강 주룡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왜놈들과 그의 앞잡이들을 향하여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웨치며 끝까지 항거해 나섰다.

그러자 놈들은 그를 생포할 목적으로 을밀대 주위에 그물을 치고 강압적으로 끌어 내렸다.

이렇게 하여 그는 끝내 놈들에게 체포되였다. 놈들은 그에게 갖은 고문을 들이대였다. 그러나 강 주룡은 원쑤들의 그 어떤 탄압과 회유 기만책에도 굴하지 않고 140여 시간의 단식 투쟁으로써 끝까지 싸웠다.

강 주룡의 체포를 계기로 로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자기들의 동지를 석방하라는 로동자들의 투쟁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그렇게 되자 왜놈들도 부득불 그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그는 지친 몸으로 잠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나중에는 평양 시내의 각 계층 인민들까지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나섰다.

이 때 강 주룡은 로동자들의 요구 조건은 해결해 줄 대신 일제 경찰의 비호 하에 공장 조업을 개시하려고 로동자들을 강제로 내모는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단결된 로동자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재차 시위 투쟁을 전개하였다.

악독한 원쑤놈들은 그를 두 번째로 체포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재차 70여 시간의 단식 투쟁을 단행하여 원쑤들의 야수 같은 고문에 항거하여 나섰다.

그러나 강 주룡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자기의 힘이 점차 쇠진해짐을 느꼈다. 그는 옥중에서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여 자기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바쳐 싸울 굳센 결의를 다졌다.

《부친님, 귀중하신 몸 건강하시옵는지요. 이 딸은 멀리서 부친님의 건강을 바랄 뿐입니다. 먼 곳에 있는 이 딸은 원쑤와 싸워 이겨 뜻을 이루게 된다면 다시 아버지를 뵈올 수 있겠사오나 만약 뜻이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죽어서 땅 속에서나 뵈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끝내 감옥에서 최후를 마쳤다. 악독한 원쑤들은 그를 체포 투옥하고 죽일 수는 있었으나 조선 로동 계급의 혁명적 기개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 후 수천 수만의 강 주룡이 조선 로동 계급 속에서 나왔으며 타번지기 시작한 투쟁의 불'길은 료원의 불'길처럼 더욱 세차게 퍼져 나갔다.



그립던 조국에…

이 글의 필자는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 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축기와 축하문을 가지고 온 재일 조선 청년 학생 자전거 행진대의 한 사람이다.

아래에 편집부에 보내 온 그의 수기 한 편을 소개한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나는 먼동이 틀 무렵 귀국선의 갑판으로 올라 갔다. 어느새 동무들도 나와 있었다. 우리는 수평선 한 끝을 애타게 지켜 보았다.

그 때 누군가 부르짖었다.

《저기 조국 땅이 보인다.》

우리가 바라 보는 수평선 끝에 아침 해'발을 받은 조국 땅이 찬연하게 솟아 올랐다. 불현듯 나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일본에서 나서 자란 내가 처음으로 보는 조국 땅, 얼마나 그립던 조국 땅인가?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 … …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우리는 배가 기슭에 닿을 때까지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배는 이윽고 천천히 닻을 내렸다. 배 우에서 부두에서 만세와 환호성이 터졌다. 배에서 내리자 마자 수 많은 손'길이 우리를 얼싸 안았다.

(조국이구나!) 이런 감격이 나의 가슴을 꽉 채웠다. 재일 동포들과 청년들에게 등대마냥 앞길을 비쳐 주는 위대한 당과 수령이 계시는 조국, 나는 오매에도 그립던 조국 땅을 디디고 서 있다. 이러한 조국이 있기에 이국 땅에서도 우리는 온갖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박차고 조국의 자주 통일과 조국과의 자유 왕래 실현을 위해 용감히 싸우는 것이다.

이 때 나는 어깨에 소중히 간직하고 오는 축기를 다시 한 번 어루만져 보았다. 축기에는 수십만 재일 조선 동포들과 청년들이 당과 수령께 드리는 감사와 그 이 앞에 끝까지 충직할 굳은 결의가 담겨져 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마음은 어서 빨리 이 축기를 수상님께 전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였다.

청진에 도착한 우리 자전거 행진대는 곧 평양을 향해 동해 기슭 천리'길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웅장한 공장과 건설장을 보았고 황금 나락 물'결치는 풍요한 들판을 보았다. 고래등 같은 문화 주택이 즐비하게 늘어선 마을들, 무수한 어선들이 떠 있는 동해의 풍경, 백과 무르익는 과수원으로 덮여 있는 야산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맑고 행복한 웃음이 물'결치고 있었다.

이렇듯 번영하는 조국을 보는 나는 온 세상을 향하여 소리 높이 웨쳤다.

《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공민이다.》

지난날 우리는 조국이 없음으로 하여 얼마나 참을 길 없는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아 왔던가! 허나 오늘은 이렇듯 강대한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며칠째 달렸을 때다. 어느 한 공장 앞에서 수 많은 군중이 운집하여 노래와 춤으로 우리를 환호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나치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결에 청년들의 물'결에 휩싸이고 말았다. 잠간 동안에 우리는 자전거가 아니라 청년들의 목마 우에 앉아 공장으로 들어 가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라홍 철도 공장이였다.

그날이꿋 청년들은 자기들의 공장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것은 참으로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공장이였다. 프레스며 타닝반 등 대형 기계들과 각종 공작 기계들이 즐비하게 늘어 섰는데 그 희한한 기계들에는 모두 《희천》, 《룡성》 등 이름이 붙어 있었다.

《야! 우리 나라 상표로구나!》

이렇게 목메여 말하며 그 기계를 어루만지는 우리 자전거 행진대원 김 동무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맺혔다. 지난날엔 연필 한 자루 변변히 못 만들던 우리 나라가 이렇듯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다니… 이 공장에서 시간마다 쏟아져 나오는 각종 차량과 차륜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감개 무량하였다.

동해 기슭의 공도 함흥을 지날 때 우리는 웅대한 화학 공장들과 우리 인민이 자신의 설비와 힘으로 불과 1 년 동안에 건설하였다는 2.8 비날론 공장을 바라 보면서 다시 한번 경탄하였다.

일본에 있을 때 전후 재'더미 우에서 복구 건설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의 투쟁 모습을 반영한 영화를 감명 깊게 보던 일이 엊그제 같건만 이 10 년 동안 우리 조국은 얼마나 멀리 앞으로 달려 왔는가!

변한 것은 조국 산천만이 아니다. 사람들도 달라졌다.

어느 날 우리는 어느 고개'마루에서 잠간 다리 쉼을 하고 있었다. 산 아래엔 오붓한 협동 마을이 자리잡고 멀리 바다가 바라 보였다.

이 때 마을 쪽에서 웬 할머니 한 분이 물동이를 이고 우리가 있는 험한 고개'길을 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앞에 오셔서

《일본에서들 온다지! 수상님께 전하는 축기를 가지구, 벌써 기별을 들었네. 자 어서들 시원히 마시게!》라고 말씀하시며 찬 샘물 한 그릇씩을 권했다. 늙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샘물을 담아 이고 험한 고개'길을 오르신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가 떠주시는 조국의 맑고 맑은 샘물을 마시며 생각하였다. (참말이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머니는 우리와 헤여지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어서 가서 수상님을 뵈옵게. 우리네 만 사람의 어버이신 그 이를 뵈옵게.》

할머니는 말씀을 끝마치고 멀리 평양의 하늘을 바라 보셨다. 그를 보는 우리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만민이 우러러 흠모하는 수상 동지를 어서 뵈옵고 싶은 간절한 생각이 더욱 북바쳐 올랐다.

드디여 우리 일행은 9월 9일 평양에 도착하여 모란봉 경기장으로 향했다.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 서자 수만 군중의 환호성이 터져 올랐다. 나는 얼른 높은 주석단 우를 우러러 바라 보았다.

이 때 나는 손을 들어 우리를 맞아 주시는 수상님을 보았다. 나는 수천리'길을 달려 온 피곤도 씻은듯 잊었다. 자나 깨나 흠모하여 오던 수상님을 가까이 뵈옵게 된 기쁨만이 가슴을 꽉 채웠다.

《수상 동지! 우리 자전거 행진대는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축기를 들고 그 이 앞으로 달려 간 나는 이렇게 힘 있게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상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손을 오래오래 잡아 주시였건만 나는 그렇게도 마음 속에 새겨 두었던 말을 못 하고 말았다. 다만 여지껏 소중히 간직하고 온 축기를 펼쳐 그 이 앞에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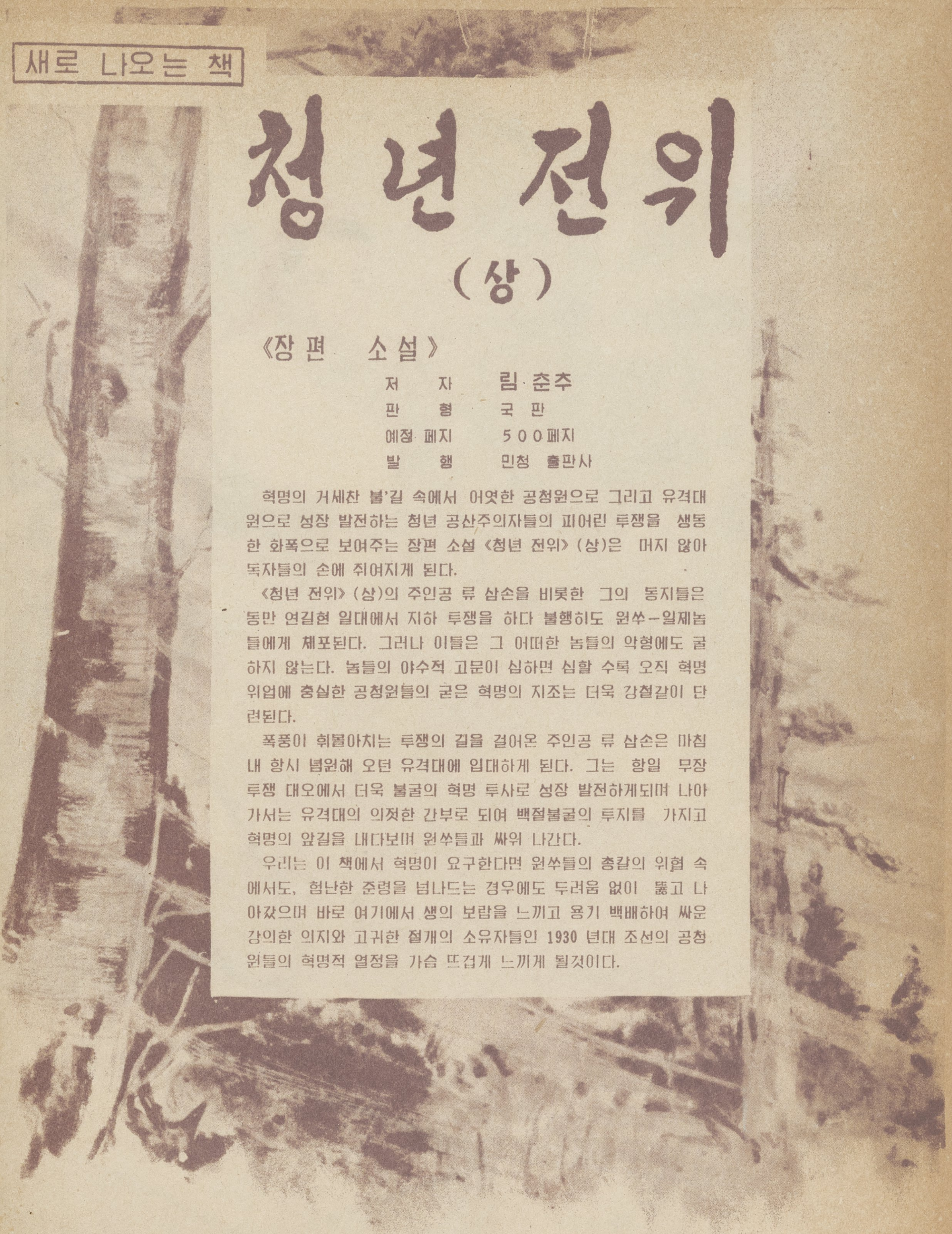
축기에는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맞이하여 경애하는 수령 당신께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예를 드립니다.》라고 씌여 있다.

나는 축기를 드리면서 그 이에게 이렇게 마음의 맹세를 올렸다.

《수상님! 우리는 당신의 전사된 긍지도 높이 조국의 영예와 륭성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리 재일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전화 (3858—8385)
1963년 10월 11일 인쇄 1963년 10월 21일 발행
(값 35 전) 7—330617



새로 나오는 책

청년 전위

(상)

《장편 소설》

저 자	림 춘추
판 형	국 판
예정 페지	500페지
발 행	민청 출판사

혁명의 거세찬 불'길 속에서 어엿한 공청원으로 그리고 유격대원으로 성장 발전하는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장편 소설 《청년 전위》 (상)은 머지 않아 독자들의 손에 쥐여지게 된다.

《청년 전위》 (상)의 주인공 류 삼손을 비롯한 그의 동지들은 동만 연길현 일대에서 지하 투쟁을 하다 불행히도 원쑤—일제놈들에게 체포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어떠한 놈들의 악형에도 굴하지 않는다. 놈들의 야수적 고문이 심하면 심할 수록 오직 혁명 위업에 충실한 공청원들의 굳은 혁명의 지조는 더욱 강철같이 단련된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투쟁의 길을 걸어온 주인공 류 삼손은 마침내 항시 념원해 오던 유격대에 입대하게 된다. 그는 항일 무장 투쟁 대오에서 더욱 불굴의 혁명 투사로 성장 발전하게되며 나아가서는 유격대의 의젓한 간부로 되여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혁명의 앞길을 내다보며 원쑤들과 싸워 나간다.

우리는 이 책에서 혁명이 요구한다면 원쑤들의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험난한 준령을 넘나드는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뚫고 나아갔으며 바로 여기에서 생의 보람을 느끼고 용기 백배하여 싸운 강의한 의지와 고귀한 절개의 소유자들인 1930 년대 조선의 공청원들의 혁명적 열정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될것이다.

